

연구보고서

대항 권력 형성을 위한 대안 정치의 구상  
: ‘전환 거점’ 만들기를 중심으로

2024년 12월



# 2024년 평등하고 공정한 나라 노회찬재단 연구용역 과제 보고서

- 연구과제명 : 대항 권력 형성을 위한 대안 정치의 구상  
: ‘전환 거점’ 만들기를 중심으로
- 책임연구자 : 이 승 원
- 연구기간 : 2024. 11. ~ 2024. 12.

본 연구보고서는 평등하고 공정한 나라 노회찬재단의 정책연구비 지원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 목 차

1장 들어가며	1
1. 나는 왜 이 연구를 하게 되었는가?	1
2. 왜 한계를 무릅쓰고 ‘장곡’과 ‘오누이 마을’인가?	3
3. 보고서의 구성	4
2장. 다중 위기와 붕괴하는 공통 세계	5
1. 다중 위기	5
2. 정치 위기	7
3. 도시 위기	9
4. 공통 세계 붕괴와 커먼즈	12
3. 전환 - 공통 세계 붕괴에 대응하기	18
1. 전환의 개념과 필요성	18
2. 탈-투기적 도시화, 탈-행성적 도시화	20
3. 변화의 서사	21
4. 전환 거점	22
4. 전환 거점 사례-장곡면, 그리고 ‘오누이친환경마을협동조합’	24
1. 장곡면 개요	24
2. 도산2리 ‘오누이친환경마을협동조합’ 개요	32
5. 나오며	38
참고문헌	40

# 1장. 들어가며

## 1. 나는 왜 이 연구를 하게 되었는가?

원래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다음과 같이 매우 형식적으로 썼다.

### 1. 연구의 배경

신관료적 권위주의와 신자유주의 과두제의 헤게모니가 지배하는 한국 정치 공간은 점차 사유화되고 있다. 이러한 정치 공간의 사유화는 복합적 위기에 대한 공적 대응력을 상실하게 만들었으며, 대중의 생명과 자기결정권을 위협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구조적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대항 권력과 대안 정치의 구성을 위한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과 대도시의 투기화 및 자원 불균형으로 인한 대중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한 '전환 거점'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탐구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다중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대항 권력의 형성과 대안 정치 주체의 재구성을 목표로 한다.

그런데, 나는 이번 연구용역 보고서의 경우, 오히려 이런 배경을 설정하게된 내 문제의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종래의 분량에 비해 좀 긴 내용으로 연구 배경을 서술하고자 한다.

내가 이 연구를 하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전적으로 내 개인적인 경험과 판단이지만 20여 년전 무려 10명의 국회의원을 당선시키며 진보정당 운동의 새 장을 열었던 민주노동당이 몇 년 동안 분화, 혹은 붕괴되는 과정을 거친 후 진보정당 운동이 고전을 면치 못하게 된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이를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문제의식을 강하게 가졌기 때문이다.

어쩌면 진보정당 운동은 이미 엄청난 수의 진성당원은 물론 노동 및 농민운동계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던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그 한계의 원인을 내포하고 있었을지 모른다. 그건 단지 소위 좌파와 평등파, 또는 NL-PD 대립이라는 전통적인 낡은 이념적 대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이 대립이 필요하고 절실한 소통과 협력을 비틀어버리는 쓸모 없는 지렛대 기능을 한 것도 사실일 것이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 더 큰 원인은 원내 진출 후 민주노동당, 그리고 이후 자칭 민주노동당을 계승했다는 분화된 이후 진보정당들의 정당정치 방식이 그들의 이념, 정책, 구호와는 별개로 그들이 대항하고 극복하고자 하는 자본주의 (뿌띠) 부르조아 정당정치의 운영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데 있다. 정치활동에 필요한 자원을 대부분 정부의 정당보조금이나 당비 또는 후원금에 의존하고 부족한 건 당원과 지지자들의 재능기부형 인력지원이나 부채에 의존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당비, 후원금, 부채는 여전히 자본주의 임금과 금융 체계에 갇혀 있었고, 이에 더 많이 의존할수록 이들이 극복하려고 했던 (적어도 사회민주주의도 아닌)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의존성이 더 커지는 역설이다. 이걸 단지 진보정당만 아니라 지난 10여 년 이상 시민사회운동이 보여준 모습

이기도 했다 진보정당이 공적 자금, 임금 노동 및 부채에 의한 후원금에 의해 유지되어왔던 것처럼 적지 않은 시민사회운동이 ‘민관협치’ 또는 ‘민간위탁’이라는 이름으로 정부 공적자금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져갔고, 급기야 관료화되거나 시민사회운동의 언어를 포기한 채 행정언어로 자신들을 규정하는 모습도 자주 눈에 띄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진보정당은 정치적 자립성이 줄어들어 거대 부르주아 보수정당의 과두제에 포섭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고, 혹은 진보적 원칙과 신념만으로 진보정당운동을 하기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른 부업을 찾거나 가족이 협력 또는 희생하거나 혹은 직장으로서 혹은 운동영역으로서 진보정당을 떠나기도 했다. 시민사회운동은 특정 정권과 밀접하게, 아니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그 흥망성쇠가 정권의 운명과 같이 가는 모습도 적지 않게 보였다. 마찬가지로 시민사회운동을 평생의 업으로 삼기엔 여러 제약조건이 점점 더 커져가게 된다. 이러다보니 두 영역에서 모두 사회적 재생산의 위기에 부딪히게 된다.

이런 일이 지속되면 진보정당은 마치 고대 그리스 철학자 제논의 역설 비유에 나온 아킬레스와 토끼처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언제나 훨씬 더 자본주의 자원이 많고, 오히려 이를 위해 노골적인 정치활동을 하는 부르주아 정당들, 특히 모든 국가권력과 사회적 관습을 휘어잡고 있는 과두제화된 보수양당을 이길 수가 없다. 즉 국민의 힘, 더불어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정의당 등이 같은 출발선 위에서 1대1대1대1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링 위에서 국민의 힘과 더불어 민주당이 한편을 먹고, 여기에 조국혁신당이 진보당이 가세를 한 상태에서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등이 역지로 한편이 되서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것이다. 물론 경기 규칙은 일방적이고 편향적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가지 있겠지만, 내 한계에서 생각난 방법은 우선 진보정당이 의존하는 자원의 성격과 생산방식을 점차적으로, 그러면서도 급진적으로 전환해 나가는 것이다. 이것은 단지 어떤 생계 또는 재생산 문제나 부르주아 정당정치에서 경쟁력을 높이자는 차원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진보정당이 ‘진보’ 정당인 이유는 기성 질서와 체제 자체를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어떤 식으로든 재구성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즉 적어도 기성 질서와 체제(단지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사이에서 진동하는 수준이 아니라)가 유지되는 수준에서 이들이 용인하고 수용가능한 자유주의 인권과 노동 개혁의제, 민족주의적 쟁점, 다수자 이익 중심 의제 등과 같은 의제만을 제시하는 것이 진보정당의 역할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건 부르주아 과두제 아래에서 권력 쟁투를 벌이는 보수정당들도 필요시 언제나 활용가능한 의제일 뿐이다.

정당을 포함한 정치적 주체가 활용하는 주요 자원은 사실 그 주체의 정치성 그 자체이다. 이걸 단지 정치자금과 인력을 제공하는 집단이나 계층이 누구인가만이 아니다. 어쩌면 그동안 이쪽에만 시선을 두었던 것일 수 있고, 이마저도 전통적 집단이나 계층의 성향이 너무도 달라진 탓에 누가 제공하는가보다는 이젠 얼마나 많은 이가 제공하는가에 주목하는 듯 하다.

그럼, 정의당을 포함한 진보정당이 활용하는 자원은 어디에 기반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모인 자원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 중요한 건 ‘전환’을 사고하는 진보정당에게 그 자원은 현재 부르주아 정당과의 쟁투에서 효과적인 힘을 내도록 해야하면서, 동시에 전환 후 만들어질 세계를 만드는 이중 기능을 수행하는 자원이어야 한다. 이것은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 자금과는 다르다. 독립운동 자금은 당시 운동 자체를 실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이었지만, 지금 진보정당의 자원은 바로 저 이중 기능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걸 이 자원이 단지 어떤 금융 자본이나 당장 함께 일할 동지의 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자원이 생산되고, 가공되고, 활용되는 방식 자체는 전환 후, 즉 ‘대안 세계’를 예시적이고, 표현적이고, 시범적인 체험이어야 하고, 이 체험의 강도와 밀도가 세지고 규모

가 커지면서 대안 세계가 조금씩 실현될 수 있다. 대안 세계는 어느날 갑자기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설령 그렇게 시작한다해도 대안 세계에 대한 어떤 경험이 부재하면 그 세계는 그 자체가 혼란이고 공포일 수 있다.

내가 앞에서 ‘좀 다른 방식으로’ 문제해결 방안을 찾고자 했던건 바로 이런 것이었다. 진보정당에 필요한 자원을 동원하고 생산하는 방식을 점차 현재 자원동원 방식을 넘어서 바꾸고자 하는 세상과 정치에 대항하면서 동시에 대안 세계를 예시적으로 경험하는 차원에서 보자는 것이다. 이런 방식은 사실 그리 새로운 방식은 아니다. 이미 사회적 경제(사회연대경제), 전환적 사회혁신, 대안 세계 운동, 생태주의적인 탈성장적 삶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이들이 한국은 물론 세계 곳곳에서 수천수만의 대안(TATA, there are thousands of alternatives)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어쩌면 고전을 면치 못하는 진보정당이 뭔가를 애써서 힘들게 쥐어짜내듯이 만들어낼 필요가 없고, 오히려 그런 힘조차 없는 상황이기에 더 주목해야할 대안들이다.

나는 진보정당이 진짜 자기 자원에 본격적으로 의존해 나가기 바란다. 대도시와 금융자본을 중심으로 활동하는(그러면서도 농촌지역을 종속화시키는) 보수정당들과 달리. 서 수많은 대안 운동을 진보정당의 기반, 아니 그 자체로 삼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대안 운동들이 발생하고 진행되는 현장이 중요한 전환 거점이 될 것이고, 이 전환 거점은 불안정하고 취약해진 사람들, 특히 기성 진보정당 주체들에게 필요한 대항력과 대안 자원을 제공할 중요한 진보정치의 거점이 될 것이다. 이 거점들을 연결하는 활동, 그리고 연결을 통해 만들어지는 활동이 새로운 진보정당의 모습이 아닐까 한다. 그리고 이 거점이 더 복잡해지고 더 커지고, 그래서 새로운 진보정당의 역할 또한 커져가는 것이 과두제 부르주아 정당이 지배하는 정치 규칙을 넘어서 진보정치 규칙으로 세상을 바꾸고 국가를 더 좋은 공통세계로 발전시키는 것이 아닐까 한다.

## 2. 왜 한계를 무릅쓰고 ‘장곡’과 ‘오누이 마을’인가?

내가 이 연구에서 ‘장곡’과 ‘오누이친환경마을협동조합과 센터(이하 ‘오누이 마을’) 사례를(이하 ‘장곡 사례’) 핵심 사례로 다른 이유는 이 사례가 내 주장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가장 바람직한 사례이고 따라서 어떤 표준화 모델로 삼기 위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나는 어떤 사례를 다룰 때 (예를 들어, 경의선 공유지 운동이든, 상미산 마을이든, 성대골 에너지 전환마을이든, 바르셀로나 드 교뮤이든, 볼로냐든, 프레스턴이든) 저런 단호한 입장을 취하는 것을 반대한다. 그건 의도치 않게 그 모델로 굳어진 쪽이나, 그걸 적용하려는 행위자나, 그리고 그 대상이 되는 쪽 모두 ‘표준화’의 무게로 인해 ‘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그곳이 장곡일 수도 있고, 원주, 완주, 서울혁신파크, 춘천커먼즈필드, 흥동, 공유서울 정책, 빈고, 풀빵, 지식공유 연구자의 집, 여러 독립 학술조직, 노동조합, 시민사회운동 단체, 이탈리아 논첼로 협동조합, 스페인 바스크 몬드라곤 협동조합, 런던 코인스트리트와 램버스 자치구 그리고 과거에는 성공모델이었는데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곳이든 어느 곳이든 다 될 수도 있고, 어떤 규모(scale)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하나의 거점이 마치 내적 완전체인 스피노자의 ‘신 즉 자연(Deus sive Natura)’이나 고대 그리스 희곡에서 뭔가 안풀리면 나타나서 한꺼번에 해결해 버리는 해결자인 ‘데우스 엑스 마키나(Deus ex machina, 기계적인 신)’처럼 완전하게 모든 내적 해결책을 다 가

질 수 없고, 한 신체가 하나의 필요나 자원에만 갇혀있지 않고 엄청나게 다양한 외부 자원, 관계, 활동과 얽혀있듯이, 거점들은 각각 폐쇄된 자급자족의 성(城)이 아니라, 가능한 더 많은 다른 거점들과 연결되어야 지속가능한, 그 자체로는 매우 불안정하고 취약한 지형이다.

그래서, '장곡'은 (또 다른 어떤 곳이라도) 아무리 좋게 소개하고 설명한다고 해도 그런 수많은 불안정하고 취약한 거점들 중 하나일 뿐이다. 장곡 주민이자 여러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한 선생님의 소개로 읽게 된 상바오의 저작 『경계를 넘는 공동체』(2024, 글항아리)가 보여주는 베이징 저장촌 생활사와 변화된 모습과 저자 상바오의 회한 섞인 비평은 어떤 '모델'의 운명의 한 단면을 보는 듯하다. 이 책에서 전체적으로 소개된(상바오가 박사논문을 쓰기 위해 연구하던 시기에 보던) 저장촌은 이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형성한 집거지다. 초기 여섯 가구에 불과했던 이곳은 점차 독특한 협력 관계망을 형성하면서 자신들의 사회경제적 생태계를 형성해 나갔다. 그들 스스로 만든 '비공식적 교육 메카니즘'도 중요한 역할을 했고, 폐쇄적이지 않으려고 끊임 없이 외부활동과 연결한 노력이 저장촌을 이후 더 크고 밀도 있는 사회경제 공동체로 키워 나갔다. 이런 노력은 빠른 인구 감소 속에서 저밀도 사회에 빠진 장곡이 외지인을 환대하고 상호 협력관계를 넓혀가면서, 동시에 '풀무학교'에서 촉발된 여러 비공식적인 교육과 공동 학습 활동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생산과 돌봄 체계를 구축하려는 모습과 유사성이 높다. 그런데 상바오의 책을 장곡에 그대로 투영하긴 어렵다. 저장촌은 어찌되었든 베이징이라는 메가도시 안에 있었고, 장곡을 둘러싼 환경은 그와는 정반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쩌면 장곡은 저장촌과는 다른 운명의 길을 걸을 수 있다. 베이징 저장촌은 이제 더 이상 상바오가 연구하던 시절 경계를 넘는 어떤 공동체가 아니다. 저장촌은 현재 2006년 이후 추진된 중국 정부의 도시개발 정책 아래 들어가면서 대규모 주거단지화 백화점 등이 이들의 사회경제적 기반과 자율성을 무너뜨렸기 때문이다. 물론 장곡은 전혀 다른 문제로 전혀 다른 위기에 빠질 수 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현재에도 있다. 그래서 장곡 주민들은 이것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다. 그만큼 장곡은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불안정하고 취약한 곳이다.<sup>1)</sup>

그래서 우리는 '장곡'을 감각적으로 '경험'하는 것 이상으로 자세히 분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 한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장곡을 내가 현재까지 이해한 수준에서(앞으로 더 정밀하고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현재진행 중이다) 우선은 스케치했을 뿐이며, 독자들이 직접 방문해서 '경험'하거나, 혹은 이곳에 내가 투영한 '전환 거점'의 상을 논쟁적으로 찾아나가고 실험하기 바란다. 나는 그저 장곡이라는 어떤 인민(人民)의 소중한 공동체적 삶의 어깨에 올라타서, 우리가 극복해야 할 문제를 해결할 어떤 '감동적인' 풍경(landscape)을 보고자 한 것이다.

### 3. 보고서 구성

보고서는 목차 순서대로 다중 위기와 공통 세계의 붕괴를 분석한 후,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환 전략을 제시한다. 이어서 전환 거점의 개념, 필요성, 구성 방안을 논의하고, 실제 사례로서 장곡 오누이의 실험을 분석한다.

---

1) 필자가 장곡을 연구하면서 흥미롭게 본 책 『관계도시-조금 덜 익명적이고 때때로 연결되는』(2024, 박희찬, 돌베개)에서 소개된 덴마크 코펜하겐에 있는 '크리스티아니아 Christiania' 마을도 저장촌만큼이나 매우 고무적인 곳이었다. 차후에 장곡, 저장촌, 크리스티아니아를 함께 비교연구하고자 한다.

## 2장 다중 위기와 붕괴하는 공통 세계

### 1. 다중 위기

나는 글로벌 차원에서 장기 지속되고 있는 다중위기(polycrisis)가 이 시대를 규정하는 중요한 현상이라 본다. 여러 연구자들에 따르면, 다중 위기 용어가 담고 있는 기후 위기,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 자원 고갈, 팬데믹, 반지성주의 행태의 확산, 그리고 민주주의의 후퇴는 사실상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 원인과 결과로 작용하면서 인류 공멸을 향해 나아가는 듯하다(모랭, 1999; Tooze, 2022; 김은주, 2024; 이승욱, 2024). 즉, 다중 위기는 경제, 환경, 사회, 정치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위기가 상호 연결되어 심화되는 현상을 의미하며, 단일한 위기가 아닌, 서로 얽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기존의 대응 방식을 무력화시키는 특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내가 이 연구의 처음에서 다중 위기를 다루는 이유는 진보정치가 '전환'을 말할 때 이 다중 위기에 대한 진보적 해법을 제시해 나가야하며, 그 해법은 다중 위기만큼이나 다중적으로 복잡적이어서, 전환 또한 매우 복잡한 전략적 구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 1) 글로벌 다중 위기의 현황

세계경제포럼(WEF)의 『Global Risks 2023』 보고서에 따르면, 인류를 위협하는 단기적 리스크로는 생계비용 위기, 자연재해와 이상기후, 지정학적 대립 등이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기후변화 완화 실패, 기후변화 적응 실패, 생물다양성 손실 등이 심각한 위험 요소로 지목된다.

- **경제 위기:** 팬데믹, 공급망 붕괴, 에너지 위기, 인플레이션 급등 등으로 인해 글로벌 경제의 불안정성 심화. 이는 생계비용 위기와 경제적 불평등 악화 및 특히 취약 계층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
- **환경 위기:** 기후변화 완화 실패와 기후 변화 적응 실패는 장기적 위험의 최상위로 꼽힘. 이는 생물다양성 손실, 생태계 붕괴, 대규모 자연재해로 이어진다.
- **사회적 위기:** 사회결속력 약화, 양극화 심화, 대규모 난민 사태 등에 따른 사회적 불안정을 초래하고 민주주의와 사회적 신뢰의 기반을 잠식한다.
- **기술적 위기:** 사이버 범죄 및 데이터 보안 위협이 증가하고, 디지털 불평등에 의한 현대 사회의 새로운 위기가 가속화된다.

#### 2) 한국 사회의 다중 위기

한국도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글로벌 다중 위기의 영향을 피하지 못하고 있으며, 한국의 고유한 상황에서 특수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위기를 겪고 있다. 그 특수함은 후술할 신관료적 권위주의와 신자유주의 과두제의 결합에 있으며, 이 결합 효과는 정치 불신과 공공성 약화를 초래하고, 부동산 투기, 주거 불안, 고용 불안정 등을 심화하면서 사람들의 사회적 불안을 악화하고 있다고 본다.

- **정치적 위기:** 민주주의 후퇴, 정치의 사유화, 대의제 한계로 정치적 대안을 찾기 어려워진다.
- **경제적 위기:** 청년 실업, 비정규직 증가, 양극화 심화로 사회적 불만과 불안이 증폭한다.
- **사회적 위기:** 고령화, 저출산, 가족 구조 변화 등에 의해 사회 안전망이 약해진다.



### 3) 다중 위기의 상호 연결성

다중 위기는 단일한 위기의 집합체가 아니라, 서로 얽히고설킨 복합적 구조를 지닌다. 경제 위기는 정치적 불안을 초래하고, 환경 위기는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등 상호 강화 효과를 갖는다. 이러한 특성은 전통적인 위기 대응 방식을 무력화시키며, 새로운 대응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 4) 파국적 위기로서의 다중 위기와 대안 정치적 실천의 필요성

이 다중 위기가 인류의 파국적 위기로 여겨지는 이유는 현 체제가 이 다중 위기의 주요 원인 제공자로 판단되기 때문일 것이다. 글로벌 헤게모니 중심에 선 신자유주의는 초국적 금융자본에 의해 끝없는 이윤 추구하고 독점화를 목적으로 값싼 노동력과 탈규제, 공공 서비스의 민영화를 통한 소비시장 확장을 촉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신자유주의는 국민국가의 주권을 글로벌 스탠다드를 내세워 침해하고 있으며, 지나치게 투기적인 개발주의적 산업화와 도시화를 촉진하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기후 위기의 주범이 되어왔고, 수많은 사람을 불안정하고 취약한 상태로 빠뜨렸고 볼 수 있다.

불안정하고 취약한 상태에 처한 사람들은 ‘프리케리아트(precariat)’라 불리며, 진보정치가 주목하는 여러 집단과 계층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사회경제적 특징이라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가 확장할수록 프리케리아트화 또한 확산한다는 사실은 다중 위기에 대한 사람들의 불안을 더 크게 한다. 왜냐하면, 바로 다중 위기를 해결할 사람들이 대부분 프리케리아트가 되어가면서, 이 위기를 해결할 주체가 새롭게 나타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와 초국적 금융자본을 옹호하고 이것들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기성 보수정당과 과두제는 스스로 자기 부정 수준의 변화가 없는 한 이 다중 위기를 해결할 주체가 되기 어렵다. 따라서, 새로운 해결 주체가 나타나기 어렵다는 건 이 위기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끔 발생하는 팬데믹이나 경제침체, 급격한 정치변동은 이에 대응하는 백신 발명과 방역체계 강화, 복지 시스템과 뉴딜 같은 사회안전망 구축 및 경제 부흥 정책, 공정한 선거와 국제사회의 협력에 의한 민주적 질서 회복 등 준비된 대책을 통해 적절히 사후 관리가 가능하다면, 다중위기가 할 필요는 없다. 즉, 글로벌 다중위기가 심각하고 치명적인 것은 바로 준비된 대책도, 그 대책을 마련할 역량 있는 주체도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비판적이지만은 않다. 절망적인 듯한 다중위기는 인류가 공멸을 향해 운명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필연적 계기가 아니라, 인류가 초래한 인위적인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다중 위기가 인류의 대항적이고 대안적 실천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의미하기도 하다. 이제는 유명해진 ‘TINA(there is no alternative, 다른 대안은 없다. 신자유주의뿐)’가 아니라 ‘TATA’라는 말처럼, 다중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전개되어왔고 현재진행중인 여러 수많은 대안적 삶들이 또 다른 인류의 인위적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작은 마을과 지역에 거주하는 다양한 행위자 집단 사이는 물론, 국가 사이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 이는 이윤 추구를 향한 경쟁과 효율성이라는, 다중위기를 초래한 신자유주의적 가치와 실천 양식을 넘어서 탈근대적이고 탈인간중심적인 가치와 실천이 요구된다. 이러한 다층적이고 복합적이면서도 전환적인 실천은 다양한 행위자 집단의 서로 다른 입장과 지식이 수평적으로 공유되고 논의될 때 가능하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더 다양한 행위자 집단이 문제해결 권한을 획득하고, 기성 권력 집단의 특권적이고 배타적인 지위를 무너뜨리는 과정을 수반한다. 새롭고 다양한 주체에 대한 민주적 권한 부여는 이들이 수평적이고 민주적으로 협력하여 다중위기의 모체인 기성 질서를 개선 또는 새롭게 재구성할 수 있는 대안 정치적 실천을 가능하게 한다.

## 2. 정치 위기

다중 위기는 글로벌 차원에서부터 일상에 이르기까지 전대미문의 불안을 사회적으로 확산한다. 산업사회 출현에 의한 전근대사회의 빠른 해체, 산업사회의 발전에 따른 아노미 현상, 빠르게 팽창하는 투기적 도시화, 자원 고갈, 전쟁, 이주민 증가, 인구 소멸,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 지구 공멸을 향한 기후 위기는 마을에서 지구 전체 규모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공동체가 총체적 붕괴에 대한 불안에 빠져들게 한다.

문제는 이 불안이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민주주의의 반지성주의적 후퇴의 주요 토양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집권에 성공한 미국 트럼프 현상, 프랑스 르펜의 국민연합(RN), 조르자 멜로니가 이끄는 ‘이탈리아의 형제들’당, 네덜란드 헤이르트 빌더스의 자유당(PVV), 그리고 집권 후 친위 쿠데타까지 시도한 한국 윤석열 정부 사례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듯이, 오늘날 다중위기가 인류를 최후의 공멸로 끌고가는 듯한 불안은 이에 대항하는 정치적 실천을 촉진해야 할 민주주의가 더 강화되기는커녕 후퇴하는 현상과 함께 더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후퇴는 단지 우파 정권으로의 정권교체 현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난민’, ‘장애인’, ‘이주 노동자’, ‘유색인종’, ‘최빈국 국민’, ‘이교도’, ‘성 소수자’, ‘빈민’ 등 다중위기로 고통받는 다양한 행위자 집단에 대한 민주적 권한 부여가 아닌 반지성주의적 권한 박탈이 우파 포퓰리즘 정치의 이데올로기적-물리적 공세 속에서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것은 이러한 민주적 권한 부여의 정치적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민주적 제도가 철회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결과 다중위기를 해결할 주체의 출현과 민주적 해결 방안 모색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다중위기는 결국 부의 독점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불평등 및 양극화 심화는 물론 정치의 실종, 혹은 정치의 사유화/독점화로 이어지고 상호 악영향을 주면서 심화하고 있다. 이것은 이 위기 심화와 정치의 실종에 맞서기 위한 대항 주체가 형성되고 대항력을 강화할 수 있는 물질, 담론적 기반이 대단히 취약한 상태라는 것이다. 이것은 대항-대안 주체의 불안정성과 취약성으로 이어진다. 민주주의의 반지성주의 후퇴가 다시 재민주화 궤도로 들어가지 못한 채 고착화되고, 그 결과 정치의 사유화와 사회의 야만화가 이뤄지는 현상은 ‘신관료적 권위주의’로 설명될 수 있다. 신관료적 권위주의는 대항-대안 정치적 주체의 출현을 차단하고, 설령 출현한다 하더라도 그 기반을 철저히 무너뜨려 가면서 대항-대안 정치의 가능성을 봉쇄하려 한다.

### 1) 한국 정치의 과두제화

과두제화(oligarchization)란 사회적 약자는 물론 일반 대중이 공공성의 붕괴, 불안정한 노동시장, 부채 증가 등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빠지면서 정치 참여 기회와 역량 또한 취약해지는 반면, 상대적으로 부를 축적하고 사회적으로 특권적 지위를 점유한 엘리트들에 의해 정치가 점차 과두제로 집중되어가는 현상을 의미한다(무폐, 2019: 33). 오늘날 포스트 민주주의 차원에서 나타나는 과두제화는 ‘인민에 의한 통치’라는 민주주의의 전제조건인 ‘인민’의 정치적 주체화와 민주 공화국의 정수인 ‘인민주권’을 사실상 무력화한 것이고, 따라서 이것은 사람들이 국가와 사회를 자신들의 공화재로 만들어갈 여력이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과두제화는 ‘인민’이 정치의 주체가 아니라 치안의 대상이 되거나, 정당 정치의 희생양이 되도록 한다(이승원, 2023a). 정치의 과두제화는 기성

보수 정당의 정치 독점을 더욱 공고화 한다. 기후 위기, 불평등(그리고 투기적 도시화와 공공 서비스의 민영화), 민주주의의 후퇴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현상은 투기적이고 지대추구적인 신자유주의 금융 자본주의 시스템에 기반한 정치의 과두제화, 즉 ‘신자유주의 과두제’의 공고화라고 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 과두제가 정치를 독점한다는 것은 정치의 또 다른 영역인 시민사회운동을 이 과두제 안으로 흡수해 나간다는 걸 의미한다. 2000년대 이후 신공공 관리 차원에서 공공 서비스 제공 업무 관련 민관협치, 민간 위탁, 정부 보조금 사업 등에 참여하는 많은 사회운동 단체가 정부의 행정관료적 통제력에 강하게 영향을 받게 되었다. 또한, 소위 진보정당 정치세력은 내부 분열, 노동·사회운동의 지지 기반 약화, 그리고 계속되는 선거 패배에 따른 누적된 정치적, 심리적, 경제적 피로감과 맞물리면서, 보수 양당이 지배하는 제도정치 공간에 들어갈 새로운 정치세력으로서의 위상을 점차 잃어갔다. 이런 흐름 속에서 적지 않은 사회운동단체 지도자들이 관료 또는 의원직 출마로 보수 양당에 들어가면서, 보수 양당이 제한한 정치 공간의 경계를 깰 수 있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출현이 점차 어려워졌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대선, 총선, 지자체 선거 시기를 기점으로 반복되면서, 한국 사회에서 21세기 새로운 정치적 과두제가 점차 공고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 2) 신관료적 권위주의

특히 이러한 21세기 한국 정치의 신자유주의 과두제화는 기술·행정관료 집단이 이 과두제화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정치 엘리트-행정관료-대기업-유기적 지식인의 공생적 협력관계가 특정 산업 기반 중심 경제적 이익 추구로 이어지고,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을 이 이익 추구와 연결하는 ‘신관료적 권위주의(neo bureaucratic authoritarianism) 체제’로 묘사될 수 있다(이승원, 2023a).

신관료적 권위주의는 용어는 정치학자 기에르모 오도넬(G. O'Donnell)이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선순환 관계의 예외적인 상황, 즉 경제발전이 민주화를 촉발하는 ‘근대화론’과 달리, 경제발전이 오히려 권위주의 정권의 출현을 촉발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한 ‘관료적 권위주의’개념을 21세기 한국상황에서 발전시킨 개념이다(이승원, 2023a). 오도넬에 따르면, 관료적 권위주의란 일반적으로 산업화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대중의 정치의식과 참여 수준이 향상되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운동이 활발해져, 산업화가 초래하는 여러 문제와 관련된 정치사회적 갈등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전통적인 권위주의 방식의 통치가 아니라, 산업화와 함께 고도화된 기술관료 집단이 지배 세력(당시에는 군부)과 연합하여 지식과 기술의 상대적 우위성으로 대중을 통치하는 방식이다(O'Donnell 1978). 관료적 권위주의는 독재자나 군부만이 아니라, 기술관료 집단과의 이해관계 속에서 정치권력, 기술관료, 자본가 사이 3자 동맹에 의한 지배를 의미한다. 또한 관료적 권위주의는 대중의 정치적 참여를 배제하고, 경제적 부를 불평등하게 배분하면서, 3자 동맹에 기초해서 군부를 중심으로 한정된 정치세력 사이에서 권력을 재생산하는 과두제 형태를 보인다. 이러한 과두제적 권력 재생산을 위해서는 필요시 경쟁적인 선거 제도를 폐지하고, 도전적인 정당을 해체하고,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반민주적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하지만, 파시즘과 달리, 대중을 정치적으로 동원하기보다 정치적 무관심을 조성하고, 주로 경제적 대외 의존성이 높은 경제발전 정책을 취하기 때문에 민족주의를 적극적으로 고양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한국 정치의 과두제화를 신관료적 권위주의 차원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오도넬이 관료적 권위주의의 특징으로 제시하는 내용들이 한국 정치권력 집단에서도 대체로 겹치면서도(새로운 산업화의

성공과 그에 따른 분배적 갈등, 노동·시민사회 운동에 대한 탄압, 정치적 허무주의의 확산, 외교 및 경제 차원에서의 대외의존도를 높이는 가운데 민족주의에 대한 상대적 거리두기 등), 군부가 아닌 민간 엘리트 집단이 관료 및 기업과 3자 동맹을 형성하고 있고, 집권 여부와 정치 공학적 갈등을 떠나 보수 양당 구조 속에서 공통의 사회경제적 기반을 공유하며, 무엇보다 개인 간 경쟁, 성과, 능력주의 등 신자유주의적 자기 계발과 소비문화에 기초한 문화 윤리적 자기 통치 방식 펼치는 변형된 특징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 신관료적 권위주의는 반지성주의적 변종 극우 리더십과 정치 부패 은폐를 시도하려는 범죄 행위가 결합되면서 2024년 12월 3일 대통령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에 준하는 내란형 계엄선포로 폭발하기도 했다.<sup>2)</sup>

한국 정치를 신관료적 권위주의 지평에서 보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이끈 민주적 열망이 문재인 정부 출현과 함께 소멸된 상황, 아무런 정치사회경제적 개혁의 성과 없이 윤석열을 앞세운 국민의 힘이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게된 상황, 그리고 대통령이 위헌적 계엄 선포와 내란 시도로 탄핵과 내란죄 처벌 재판 중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힘과 윤석열의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대 야당인 더불어 민주당과 현재 유일한 대선 후보로 여겨지는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가 아무런 개혁 조치도 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안 정치세력으로서 사회적으로 급부상하지 못하는 상황이 어느 정도 설명된다.

간단히 설명하면, 우선 신관료적 권위주의 차원에서 보면, 국민의 힘과 더불어 민주당은 표면적으로는 한국 사회의 좌우를 대표하는 적대적 양대 세력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양당을 제외한 새로운 정당의 의회 진출을 사실상 철저히 차단하면서 정치권력을 양분하는 대타협 주체이다. 이들은 표면적으로는 적대적이거나, 내적으로 정치 공간을 분할 점령하는 과두제 단일체다. 과거사 청산, 역사 인식, 남북관계 등에 대해서는 일정한 이념적 차이를 분명히 드러내는 듯하나, 주요 경제 및 복지정책의 경우 기본적으로 친자본-반노동 정책을 공유하고 있다. 무엇보다 더불어 민주당의 경우 노동정책, 복지정책, 기후 위기, 소수자 인권 정책 등에서 점차 국민의 힘과의 차이를 없애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양당이 정치 공간을 독점할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책임지려는 정치 공간을 점차 축소하고 자기 이익에 몰두하면서, 시민사회를 정치가 실종된 만인 대 만인 투쟁, 반지성주의와 탈진실이 지배하는 세계로 야만화하고, 정치적 주체화의 기회를 빼앗긴 시민들은 점점 사회가 야만화되는 과정에서 사회적 삶이 더 불안정하고 취약해지게 된다.<sup>3)</sup>

### 3. 도시 위기: 약탈적 도시 구성체로서의 도시의 신자유주의화

도시 위기는 단순한 물리적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가 신자유주의적 논리에 따라 약탈적 도시 구성체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전환은 도시를 단순한 경제적 축적의 공간으로 만들고, 공공성의 붕괴와 사회적 배제를 심화시킨다.<sup>4)</sup>

2) 이 사건은 현재 진행형으로서 일부 군부 세력이 어떻게 결합했는지와 군산복합체, 화석연료 및 원전 복원 세력 등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데, 이 글을 쓰는 동안에도 매우 민감하고 중요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니만큼 (분석이 병행되긴 하지만) 구체적인 정치적 개입이 훨씬 더 필요한 상황이다.

3) 신자유주의 과두제화와 신관료적 권위주의에 대해서는 필자의 줄고 “공공성과 신관료적 권위주의: 공공성과 정치의 민주적 회복을 위한 개념적 고찰”(시민과 세계, 2023. 하반기호 통권 제43호)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4) 이하 도시 구성체, 투기적 도시화, 행정적 도시화에 대해서는 필자의 줄고 “도시 구성체와 도시 커먼즈: 대

## 1) 이상블라주로서의 도시

들뢰즈(G. Deleuze)와 가타리(F. Guattari)가 정교화한 이상블라주(asssemblage)는 이 이상블라주가 지칭하는 복합체가 유지, 해체, 재구성되는 현상의 ‘배치(agencement)’ 그 자체이며, 관계적이고 생산적이며, 이종적이고 탈영토화와 재영토화의 역동성을 갖추고 있다고 한다. 이상블라주는 각각의 요소들이 내재적인 원인과 본질에 기반해서 하나의 통일체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질적인 것들이 묶여 있고,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블라주 자체의 본질이나 내적 원인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상블라주는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 사이의 복합적인 관계와 상호작용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매개어이자 이를 가리키는 용어다.

이상블라주를 도시에 적용해 보면, 자본주의 도시 프로젝트가 일반적으로 자본의 축적과 상품화, 불균등한 지역 개발과 불평등한 도시화라는 일방적인 과정을 배타적으로 추진하는데, 사실 도시는 이런 자본주의 도시 프로젝트와는 달리 이상블라주와 같은 복합체의 특징 또한 가지고 있어서, 이상블라주로서의 도시는 자본주의 도시 프로젝트의 일방적이고 배타적인 과정과 교차하거나 일부 겹치면서 신자유주의 도시화에 필요한 요소들을 제공하기도 하고, 도시화와 충돌·갈등을 빚기도 한다.

즉, 도시를 이상블라주로 이해할 수 있는 건 도시가 특정한 중심이나 본질적인 핵심에 기반한 내적인 힘에 의해 필연적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연성, 마주침, 혼종성, 규범성, 관계성, 다원성, 다층성 그리고 여러 서사의 얽힘으로 구성되기 때문이고, 이상블라주 개념은 이를 잘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이 얽힘 속에서 때로는 수많은 욕망이 충돌하기도 하고 하나의 욕망이 이 얽힘을 지배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상블라주로서의 도시는 시간의 축에서 끊임없이 꿈틀거리고, 진동하고, 변해가기 때문에, 특정한 공간 기획, 즉 특정한 도시 프로젝트로 완전히 고정되거나 재현될 수 없다.

그래서, 도시는 고정된 형태나 본질이 아니라 다양한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며 구성되는 이상블라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도시는 물질적 요소, 사회적 관계, 정치적 힘이 얽혀 있는 복합체이며, 특정 도시의 경계가 구획한 영도에 대한 탈영토화(deterritorialization)와 재영토화(reterritorialization)를 통해 끊임없이 변화해 나간다. 나는 이 탈/재영토화 과정과 이상블라주로서의 도시가 특정한 권력 관계와 헤게모니적 담론을 통해 재현되고 고정된 형태로 나타나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도시 구성체(urban formation)’ 개념을 적용하고자 한다. 도시 구성체는 이상블라주의 유동성과 다양성을 억제하고, 특정한 질서와 규범을 강요하는 정치적, 경제적 기획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특정 자본주의 도시 프로젝트는 이상블라주로서의 도시를 헤게모니적으로 특정 질서로 확정하려는 하나의 도시 구성체라 할 수 있다.

## 2) 도시 구성체

도시 구성체란 특정 도시 프로젝트가 임의적이고 의도적으로 이상블라주로서의 도시를 고정하고, 다른 탈영토화의 가능성을 억제하면서 특정 논리로 도시를 재현하는 물리적 구현체와 인간 실천의 통일체(자본주의 도시 구성체는 도시를 자본축적을 위한 공간이자 실천적 관계로 재구성하고, 자본주의적 교환가치와 이윤 추구 행위를 우선시 함)를 의미한다. 나는 라클라우와 무페(E. Laclau & C. Mouffe)가 제시한 ‘헤게모니 구성체(hegemonic formation)’을 도시와 ‘도시적인 것(the urban)’ 차원에서 특화해서 ‘도시 구성체’라 명시하기로 했다.

도시를 도시 구성체로 파악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도시와 도시의 구성 질서 및 도시가 규정하는

---

안적 도시 전환을 위한 개념적 고찰”(공간과 사회, 2023. 통권86호), 그리고 박배균과 박양범 공저 “‘강남화’의 사회-문화적 과정과 헤게모니적 영토성: 투기적 도시화에 대한 대안적 관점의 모색”(공간과 사회, 2023. 통권86호)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일상의 동선이나 행위 규범 등은 우연적이며 정치직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도시를 도시 구성체로 볼 때, 도시 전환의 가능성의 근거와 실천 전략을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덧붙여, 도시 구성체는 아상블라주로서의 도시에 대한 헤게모니적 개입의 결과이며, 아상블라주는 도시 구성체를 통해 불안정하고 왜곡되게 재현 또는 재정의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헤게모니적 효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 3) 도시 구성체의 헤게모니적 효과

- ① **남유(catachresis)**: ‘남용된 은유’를 가리키며, 특정 기호의 외연을 강제적으로 확장하여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예를 들어, 책상다리, 비행기의 날개, 건물의 양 날개와 같은 것. 다리나 날개는 사람 또는 동물의 신체 일부를 지시하지만, 책상이나 비행기, 건물의 일부를 부를 다른 지시어가 없기 때문에 오용된 것)이다. 사실 모든 단어/기표는 선형적으로 주어진 의미가 없기 때문에, 다 남유가 동반되었다고 볼 수 있다. 도시 구성체에 적용하면, 남유는 도시적인 것의 특정한 요소에 특정 도시 구성체의 실질적 주제위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공공성, 사회혁신, 국가, 시민사회, 스콧, 미등록 거주민, ‘우리 동네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기표들이 특정한 의미와 임의적으로 접합되는 과정인데 여기에는 어떤 기표나 단어의 의미를 과하게 부여하거나 왜곡해서 사람들의 욕망을 부추기거나 특정한 대상을 비하 또는 혐오하도록 하는 효과를 낸다.
- ② **추방(ban)**: 도시 구성체의 헤게모니적 재현 과정에서 남유에 의해 부정당하거나 빼앗긴 의미와 지시 대상들이 재현 질서 밖으로 추방되는 것이다. 여기서 추방은 정당한 행위가 된다. 아감벤(Giorgio Agamben)에 따르면, 추방은 도시의 경계를 설정하고, 도시 바깥까지도 ‘예외 상태’로서 도시 법에 귀속되도록 하는 주권적 행위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불법 체류자를 감금하거나 그들의 삶의 영역을 계도화하고, 재개발 시 원주민을 내쫓는 현상도 이런 맥락에서 가능하다.
- ③ **탈구(dislocation)**: 기존 질서와 제도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기존 질서와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다양한 정치사회적 시도들을 촉발함 탈구적 계기는 기존 질서에 대한 부정과 재구성의 가능성을 제공하며, 기존 질서와 제도의 변화를 촉진한다. 탈구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수반한다.
- **탈구의 이중 운동**: 탈구적 계기가 발생하면 한편으로는 기존 질서와 제도를 복원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질서와 제도를 대체해서 새로운 질서로 나아가려는 시도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이 양자가 경합하고 충돌 가능하다. 이 탈구적 계기는 기성 질서가 부여한 어떤 규범이나 규칙을 넘어서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한 가능성과 자유의 계기이며, 기존 질서로 봉합되거나 새로운 질서가 수립되기까지에만 일시적으로 유지되는 일시성을 특징으로 한다. 중요한 건 탈구적 계기는 바로 새로운 정치적 주체가 등장할 수 있는 계기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과두제의 균열지점에서 새로운 정치적 주체가 대안 세력으로 등장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은 마르크스의 보나파르트주의(Bonapartism)이나 그람시의 카이사르주의(Cesarism)과 같이 협의의 수준에서 대안적 정치세력의 등장을 촉발하는 조건일 수도 있다.
- **탈구와 도시 구성체의 변화**: 도시 차원에서 탈구적 사건의 출현은 도시 구성체가 탈구축되고 재구성되는 계기이며, 아상블라주로서의 도시가 리좀적 특성과 탈영토화의 가능성을 회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남유와 추방이 특정한 도시 구성체를 위해 아상블라주로서의 도시에 중심을 부여하고, 영토적 경계를 절대적으로 구축하려는 헤게모니적 실천이라면, 탈구는 그 실천이 무너진 상태, 즉 남유와 추방에 의해 재현적 영역으로 들어오지 못했던 것들이 재현 과정에 결합될 수

있는 탈영토화와 재영토화의 순간이라 할 수 있다. 중요한 건 이 또한 대단히 복합적인 정치적 실천과 기획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 4) 도시 구성체의 정동적 차원

도시 구성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재현한 것들과 함께 밖으로 추방된 비재현된 것들 사이 뒤틀림을 분석해야 한다. 이 비재현된 것은 정동적(affective) 차원에서 파악될 수 있다. 도시 구성체에서는 다양한 욕망이 우연적으로 교차하기보다는, 하나의 욕망이 판타지로서 지배적이며, 다른 욕망을 억누르고 이 다른 욕망을 재현 영역 밖으로 추방하는 억압적인 특징을 가진다. 따라서 도시 구성체에 대한 분석은 이것에 의해 재현된 것들의 특징을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작업과 함께, 비재현 영역으로 추방되었지만 도시 구성체의 경계에서 떠돌고 있는 아상블라주로서의 도시의 조각들에 대한 정동적 차원의 분석이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

도시의 정동(affect)은 단순한 감정의 집합이 아니라, 도시 구성체 내에서 형성되는 사회적 관계와 권력 구조에 깊이 뿌리내린 감정적 반응들이다. 이는 불안, 소외, 분노 등의 형태로 나타나며, 약탈적 도시 구성체에 대한 저항의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 **불안과 소외:** 신자유주의적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안과 소외는 도시 구성체의 정동적 불안정성을 드러낸다. 이것은 과도한 투기적 현상이나, 서울 중심, 강남 따라하기 같은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 **저항과 대안적 상상:** 정동은 도시 구성체의 위기를 인식하고, 대안적 정치와 공간적 실천을 상상하는 동력이 된다. 여기에서 진보정치는 어떤 대항적이고 대안적인 자원과 관계를 만들어 가는 실천을 시작할 수 있다.

#### 5) 약탈적 신자유주의 도시 구성체와 도시 위기 본질

신자유주의는 도시를 약탈적 도시 구성체로 재편한다. 이는 도시 공간을 자본축적 대상으로 삼고, 부동산 개발, 투기, 민영화를 통해 도시의 공공성을 해체하는 과정이다. 신자유주의 도시 구성체는 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부정적 효과를 만들어 낸다.

- **공간의 사유화:** 공공 공간과 국공유지가 점차 사유화되고, 도시 공공재는 물론 도시 밖 비도시 영역(자연, 농촌 등)은 독립되고 도시와 균등한 상태가 침해된 채 신자유주의 도시화의 이익을 위해 수동적으로 개발되고 소비된다.
- **경제적 약탈:** 부동산 투기와 개발 이익이 소수의 자본 엘리트에게 집중되며, 이는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배제를 심화시킨다. 점차 도시에서 삶을 유지하기 위해 개인에게 요구되는 자본주의적 지급능력의 하한선이 과도하게 높아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프레카리아트화된다.
- **사회적 배제와 추방:** 개발 과정에서 취약 계층은 도시 중심부에서 밀려나고, 이는 도시 내 계층 분리와 사회적 불안정을 초래한다. 또한 아상블라주로서의 도시가 보장한 다양하고 자유로운 삶과 권리가 부정되면서, 특정 도시 프로젝트에 여러 차이가 강제로 맞춰져 변형되어야 한다.

다중 위기의 진원지이기도 하는 우리가 직면하는 도시 위기의 본질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의 붕괴가 아니라, 신자유주의적 약탈적 도시 구성체가 공공성과 사회적 연대를 해체하는 데 있다. 이는 공공 자원의 사유화, 경제적 불평등 심화, 사회적 배제 강화로 이어지며, 도시를 더 이상 공동체의 공

간이 아닌 자본축적 수단으로 전락시킨다. 따라서 도시 위기는 약탈적 도시 구성체의 헤게모니에 따른 정치의 위기이며, 아래에서 언술할 우리 공통 세계의 붕괴와 인간을 포함한 생명의 자기 보존과 존엄성을 위협하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도시 구성체의 근본적 재구성과 대안적 도시 정치의 실천이 필요하다. 이 약탈적 신자유의주의 도시 구성체는 ‘투기적 도시화(speculative urbanization)’과 ‘행성적 도시화(planetary urbanization)’의 궤도 위에서 진행된다.

## 6) 투기적 도시화

투기적 도시화(speculative urbanization)는 도시 개발 과정이 사회적 필요나 공공의 이익보다 자산 가치 상승과 이윤 극대화를 목표로 이루어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는 부동산, 토지, 주거 공간 등이 단순한 생활 기반이 아닌 투자 및 투기의 대상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투기적 도시화는 주거, 상업, 공공 인프라 등의 본래적 사회적 기능이 사유화되고 상품화되는 특징을 지닌다. 이 과정에서 개발 이익의 극대화가 최우선 가치로 설정되며, 이는 도시 공간을 자본의 축적 논리에 따라 재편하고, 기존 공동체의 해체와 불평등한 공간 구조를 생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강남화를 통해 대표되는 한국의 투기적 도시화는 특히 도시 중산층의 투기적 욕망이 주도하는 사회문화적 현상으로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초래한다.

- **사회적 불평등 심화:** 주택 가격 상승과 자산 격차 확대에 의한 계급 간 불평등을 심화한다.
- **공간의 사유화:** 도시공간이 공공재로서 가치를 잃고, 사적 이익을 위한 투기 대상으로 전락한다.
- **도시의 탈정체성화:** 지역 고유의 정체성이 사라지고, 획일화된 개발 패턴이 반복됨
- **정동의 포획:** 도시 중산층의 욕망이 투기적으로 정치·경제적 담론과 접합되며, 헤게모니적 도시성이 도시 중산층의 삶을 배타적으로 지배해 나간다.

## 7) 행성적 도시화(planetary urbanization)

행성적 도시화는 도시화가 개별 도시의 경계를 넘어 전 지구적 차원으로 확장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개념이다. 이는 도시화가 단지 물리적 도시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농촌, 교외, 심지어 오지까지 자본 축적과 개발의 논리에 포섭되는 현상이다. 즉, 단순한 도시의 확장이 아니라, 자본의 축적 논리가 지구적 차원에서 자연환경, 농촌, 생태계를 재구성하는 과정이다. 행성적 도시화는 글로벌 자본주의의 확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전 지구적 공급망, 금융 네트워크, 정보 통신 기술의 발전을 통해 도시와 비도시 공간의 경계를 무의미하게 만든다. 모든 지리적 공간이 잠재적인 개발 대상이 되면서, 도시화는 더 이상 특정 지역의 현상이 아닌 전 지구적 프로세스로 작동한다. 행성적 도시화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주로 드러낸다.

- **환경 파괴:** 대규모 토지 개발, 생태계 파괴, 자원 고갈 등으로 지구 환경을 회복불가능하게 파괴한다.
- **도시-비도시 경계의 붕괴:** 도시화가 농촌, 산림, 심지어 해양까지 확장되며 전통적인 도시 개념이 무의미해 하고, 농촌과 자연의 본연의 기능, 자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훼손한다.
- **생태적 불평등:** 도시화의 혜택은 일부에 집중되지만, 환경 파괴와 기후 위기의 비용은 전 지구적으로 분산하게 되고, 오히려 소수의 이익을 위한 도시화에 따른 생태적 파괴는 취약계층에게 더 큰 위협으로 다가온다.
- **추방과 배제:** 도시 개발 과정에서 원주민, 농민, 취약계층이 배제되고 추방되는 현상이 강화된다.



## 8) 투기적 도시화와 행성적 도시화의 관계

투기적 도시화와 행성적 도시화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글로벌 자본주의와 초국적 금융자본의 헤게모니가 공통 분모로서 투기적 도시화는 행성적 도시화의 구체적 실천 방식 중 하나로 작동하며, 행성적 도시화는 투기적 도시화가 확장될 수 있는 구조적 토대를 제공한다. 투기적 도시화는 행성적 도시화의 국지적 현상으로 나타나며, 글로벌 자본의 흐름 속에서 특정 지역의 개발 붐, 부동산 시장의 투기적 가치 상승, 금융화된 토지 이용 등의 형태로 구체화 된다. 반면, 행성적 도시화는 투기적 도시화의 확장과 가속화를 가능하게 하며, 글로벌 자본주의의 논리가 도시 경계를 넘어 지구적 차원으로 확대됨으로써 투기적 도시화의 무대가 전 세계로 확장한다. 결국 이 두 도시화가 약탈적 신자유주의 도시 구성체를 지속강화하면서 공공성과 공통 세계의 붕괴를 가속화하고, 전 지구적으로 다수 대중을 불안정하고 취약한 프레카리아트로 그 삶의 조건을 악화시킨다고 볼 수 있다.

## 4. 공통 세계 붕괴와 커먼즈

### 1) 공공성과 공통 세계의 개념

공공성(publicness)은 단순히 국가 기관이나 공공 서비스의 기능적 차원을 넘어서는 개념으로, 개인들이 서로 상호작용하고 정치적 주체로서 등장할 수 있는 사회적 장을 의미한다.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에 따르면 공공성은 사람들이 공통의 사안에 대해 논의하고 행동하는 공간, 즉 정치적 활동이 가능한 장이다. 이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보장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며, 공통 세계(common world)의 핵심 요소가 된다. 사이토 준이치는 공공성을 개인의 사적 이익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보지 않고, 다양한 차이와 갈등을 조정하고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는 역동적 공간으로 규정한다. 즉, 공공성은 단순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사회적 실천의 결과물이다. 공공성은 모두가 접근 가능하면서, 모두의 삶에 기본적인 공통 기반이 되는 공공재와 공적 서비스에 대해 공적 권위, 즉 국가/정부가 의무적으로 그 가치실현을 위해 노력해야함을 추구하는 가치다. ‘공통 세계’란 이러한 공공성이 구체적으로 구현된 공간으로, 사람들이 공통의 현실을 공유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장소이다. 이는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사회적 상호작용과 정치적 실천을 통해 형성되는 집합적 실재이다. 아렌트는 공통 세계가 인간 존재의 필수 조건이며,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정체성을 형성하는 장이라고 주장한다. 즉 공통 세계는 인간이 사회적으로 존재하는 한, 그 존재 양식이며, 본질적으로 생명 보존과 이를 위한 사회적 관계 유지를 추구한다.<sup>5)</sup>

### 2) 공통 세계 붕괴

공통 세계의 붕괴는 공공성의 약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신자유주의 과두제와 신관료적 권위주의의 확산은 정치적 권력을 소수 엘리트에게 집중시키고, 대중의 정치적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공공성을 위축시킨다. 이러한 과정은 공통 세계를 유지하는 기반을 약화시키고, 개인들이 고립된 사적

5) 본 연구 보고서의 여러 제약으로 인해 ‘공공성’과 ‘공통 세계’에 대해 여기에서 자세히 설명하지 못했다. 이에 대한 필자의 생각은 앞에 소개한 논문(이승원, 2023a)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존재로 전략하게 만든다.

또한, 정치 위기와 공통 세계의 붕괴는 상호 강화 작용을 한다. 정치적 무력감과 탈정치화 현상은 시민들이 공공의 문제에 참여하지 않게 만들며, 이는 다시 정치적 대표성과 민주주의의 약화로 이어진다. 이러한 과정은 사회적 연대의 해체와 공동체의 파편화를 초래하고, 개인들은 더 이상 공통의 목적을 공유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공통 세계의 붕괴는 단순한 사회적 공간의 상실이 아니라, 정치적 주체의 위기로 직결된다. 공통 세계를 개인들이 타인과 함께 공공의 사안에 대해 논의하고 행동할 수 있는 정치적 장으로 정의한 아렌트에 따르면, 공통 세계는 개인이 고립된 존재가 아닌, 공동체 내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정치적 실천을 통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적 경제 구조와 신관료적 권위주의의 확산은 공통 세계를 사유화된 경제적 공간으로 전환시켰다. 이는 공공성의 약화로 이어지며, 정치적 참여의 기회를 축소하고 대중의 정치적 무력감을 심화시킨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개인이 더 이상 정치적 주체로서 자신을 인식하거나, 사회적 연대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반을 잃게 된다. 현재 보수양당 과두제가 점차 강화되고 상식처럼 받아들여지게 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이것은 내가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진보정당과 시민사회운동의 위기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 3) 커먼즈

커먼즈(communs)는 이러한 주체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모델로 등장한다. 커먼즈는 자원의 공동 관리뿐만 아니라, 정치적 주체성이 재구성되는 장소로서 기능한다. 이는 개인이 단순한 소비자가 아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참여하고 협력하며 새로운 정치적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공간이다. 아래 표는 오늘날 ‘커먼즈’와 연결된 유무형의 자원을 정리한 것이다. 각각은 커먼즈 활동을 매개하는 자원이다. 이것들은 전근대적 방식, 자본주의방식, 제국주의적 방식, 혹은 신자유주의적 방식과 연결될 때 커먼즈와는 정반대로 수탈과 착취의 자원이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이 표에 있는 자원 목록들은 그 자체가 커먼즈라기 보다 커먼즈화(commoning)를 통해 공공재로서의 위상을 유지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 커먼즈	기반 커먼즈	글로벌 커먼즈
패션·토착문화, 음악, NPO, 공공미술, 영성·종교적 커먼즈, 스포츠(스노우 모빌, 파도타기, 수상 스포츠), 관광업(풍경, 생태 관광)	전자기 스펙트럼, 공공 무선, 무선 통신, 인터넷 기반, 교통(길-교통체증, 자발적 제공, 감속, 주차, 항공, 항만), 예산	남극대륙, 대기권, 생물 다양성, 해양심층부, 전자기 스펙트럼, 식량 안보, 지구 온난화, 우주공간, 오염, 유독성 폐기물과 쓰레기, 월경 하천, 물 부족, 지식, 공중 보건, 시장, 기반, 사회적 커먼즈, 문화적 커먼즈
보건의료 커먼즈	지식 커먼즈	전통적 커먼즈
항균 저항성, 의료 예산, 공중 보건의료, 병원	디지털 격차, 교육(대학, 시민교육), 지적 재산권(反커먼즈, 저작권·판권, 크리에이티브·과학적 커먼즈, 프리 소프트웨어, 특허,	농업, 어업, 산림, 목초지, 토지 보유와 사용, 마을과 사회 조직, 물과 관개, 야생 동물

	쑈커먼즈)	
근린 커먼즈	시장 공유/커먼즈	
홈리스, 주거(주택 소유자 연합, 아파트 공동체), 공동체 정원, 치안, 인도, 거리, 고요·소음	자본주의, 교환, 선물 경제	
Charlotte Hess, 2008, Mapping of the New Commons, W08-21, July 2008, <a href="https://papers.ssrn.com/sol3/Delivery.cfm/SSRN_ID1356835_code842516.pdf?abstractid=1356835&amp;mirid=1">https://papers.ssrn.com/sol3/Delivery.cfm/SSRN_ID1356835_code842516.pdf?abstractid=1356835&amp;mirid=1</a> , p. 13		

이 목록들이 커먼즈화될 때, ‘공통 세계’는 더 밀도있게 강화되고 커져갈 수 있다. 반면 이것들이 사유화되고 상품화될 때 공통 세계는 축소 혹은 붕괴되어 간다고 할 수 있다. 즉 커먼즈는 공통 세계의 붕괴에 대한 대안적 실천으로 제시된다. 커먼즈는 단순한 자원의 공유를 넘어, 자원의 공동 관리와 민주적 거버넌스를 통해 공공성을 회복하고 강화하는 공간이다. 이는 공동체의 자율성과 연대성을 기반으로 하며, 자원의 사유화와 시장 논리에 저항하는 대안적 모델로서 중요하다. 오늘날 신자유주의의 민영화 정책에 따라 시장 상품으로 전락해가는 각종 공공재와 공공 서비스를 재공영화하기 위해서는, 다시 언제든지 정부가 양도가능한 수준의 국가 소유로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커먼즈 차원에서 재공영화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국가 중심의 공공성 개념을 넘어,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형태의 정치적 공간을 창출한다. 국가가 공공성을 독점하거나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커뮤니티와 사회적 주체들이 공공성의 주체로 등장하면서 이를 구성하는 것이다. 국가와 커먼즈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긴장과 협력의 이중적 성격을 가진다. 국가는 공공의 자원을 관리하고 분배하는 중요한 기구이지만, 때로는 자원의 사유화와 중앙집권적 통제를 통해 커먼즈를 억압하기도 한다. 이에 커먼즈는 국가의 권위에 도전하거나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공공성을 다층적으로 확장하는 전략을 구사한다.

커먼즈 운동은 국가와의 관계를 조정해 나가면서 우선 사유화되고 상품화된 공공재를 다시 공영화하고, 취약한 상태의 공공재를 보호하면서, 이를 토대로 확보된 공공재를 커먼즈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확보된 커먼즈 기반 공공재를 연결하면서 국가를 지리적 차원이 아닌 ‘공공성’ 차원에서 재영토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렇듯, 커먼즈는 공통 세계의 회복과 재구성을 위한 중요한 요소다. 나아가 커먼즈는 국가의 중앙집권적 모델을 넘어 분산적이고 자율적인 거버넌스 모델을 지향한다. 이는 공공성이 국가의 행정적 틀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사회적 주체들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과정은 공공성을 사유화된 정치 공간에서 해방시키고, 대항 권력과 대안 정치의 실험장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전략이 된다. 커먼즈는 단순한 자원 관리 모델이 아니라, 사회적 연대, 자율성, 민주주의의 확장을 통해 새로운 정치적 상상력과 실천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커먼즈는 공공성과 국가, 그리고 공통 세계 사이의 연결고리로서 기능하며, 대안적 정치 공간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는다. 이것이 국가를 커먼즈하는 방법 중 하나일 것이다.<sup>6)</sup>

공공성과 커먼즈의 붕괴는 주체의 위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공공성이 약화되면 개인은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과정에서 배제되며, 이는 정치적 무관심과 냉소주의로 이어진다. 동시에 커먼즈의 해체는 공동체 기반의 연대와 협력의 가능성을 축소시켜 개인을 고립된 존재로 만든

6) 커먼즈 개념을 민주주의와 연결시키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필자의 줄고 “도시 커먼즈와 민주주의: 도시 커먼즈 운동의 특징과 동학에 관한 이론적 재고찰”(공간과 사회, 2019, 통권68호)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다. 특히, 다수 대중이 프리케리아트화되는 현실의 문제는 민주주의 권력, 즉 인민 주권의 주체인 이들의 정치적 주체로서의 역량을 약화시키고, 이것은 과두제 강화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즉, 이는 민주주의의 기반인 시민 참여와 사회적 연대를 약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다. 프리케리아트는 불안정한 고용과 사회적 불안정성으로 인해 정치적 참여의 여력이 부족하며, 이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정치적 주체로서의 역량을 더욱 약화시킨다.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은 민주주의의 위기와 연결된다. 진보정당, 나아가 진보정치의 대안적 자원 생산 방식으로서 공공성 회복과 커먼즈의 재구성이 왜 중요한지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본다.

### 3장 전환 - 공통 세계 붕괴에 대응하기

#### 1. 전환의 개념과 필요성

##### 1) 전환의 의미

나는 '진보정치'를 고민하는 한 '전환'을 고민해야하고, 이 전환은 기성 질서와 체제에 대한 본질적이고 급진적인 성찰과 비판을 전제로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자본주의, 특히 오늘날 신자유주의가 시장과 국가는 물론 자연과 생명/신체에 대해 대단히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통치 전략을 투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중 위기'라는 거울 효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에 대항하는 '전환' 또한 그 다층성과 복합성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사고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런 측면에서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듯, 전환(transformation)은 단순한 변화(change)나 이행(transition)과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기존 체제의 근본적인 구조와 가치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환은 복합적 위기 상황에서 기존의 질서와 체계모니를 넘어서 새로운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구조를 창출하는 과정이다. 이는 위기를 단순히 관리하거나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통해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는 창의적 파괴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sup>7)</sup>

전환의 필요성은 앞서 언급했듯이 현재의 다중 위기 상황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기후 위기, 불평등, 민주주의의 위기 등은 기존 시스템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개혁이 아닌, 근본적인 체제 전환이 요구된다. 따라서, 전환은 공통 세계 붕괴와 주체의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필수적이다. 이는 기존의 권력 구조와 사회적 질서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인식(급진적 단절, 붕괴와 심층 적응 등)에서 출발한다. 이는 새로운 사회적 상상력과 집합적 실천을 통해 대안적 미래를 창조하는 과정이다.

결국, 전환에 대한 이러한 포괄적 사고는 단순한 기술적이거나 공학적 변화가 아니라, 개인과 공동체의 정치적 주체성을 회복하고, 공공성과 커먼즈를 재구성하는 정치적 실천을 통해 불안정한 사회 구조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사회적 전환을 이루는 중요한 출발점이다.

##### 2) 전환적 사회혁신 차원에서의 전환

나는 이 '전환'의 의미를 '전환적 사회혁신 이론(Transformative Social Innovation Theory/TRANSIT)을 빌려서 적용하려고 한다.<sup>8)</sup> 전환은 기존 체제의 근본적인 구조와 가치를 재편

7) 'transforamtion'은 전환으로도 번역되지만, '변환', '변이', '변화'로도 번역된다. 중요한 건 trans+formation으로서 특정한 구성체/형태가 바뀌어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 바뀐다는 변화가 구성체의 속성이 아니라, 전혀 다른 구성체가 된다는 것을 말한다. 다른 한편 'transition'이 기후변화 관련 이론에서 주로 '전환'으로 번역된다. 그런데 정치학에서 이 단어는 '이행'으로 번역된다.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의 정권의 변화를 '이행'으로 표현한다. 이는 물론 '혁명'이란 단어를 정치학 영토에서 배제하려는 시도가 깔려있는 것도 사실이다. 나는 이런 모든 걸 고려해서 transformation을 전환으로, transition을 이행으로 번역해서 활용한다. 물론 다른 번역어가 틀렸다가거나 제한적이라는 건 아니다. 번역이기에 언제나 맥락적 이해가 가능하다면 유동적으로 취사 선택이 가능하다고 본다.

8) TRANSIT에 대해서는 “<TRANSIT>과 전환적 사회혁신”(장훈교, 2017. 월간 사회혁신의 시선, 10호, 2017.04.29. 사회혁신리서치랩)과 “전환적 사회혁신론과 사회혁신: 전환관점에서 본 한국의 사회혁신정책”(정병걸·송위진, 2019.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제9권 4호)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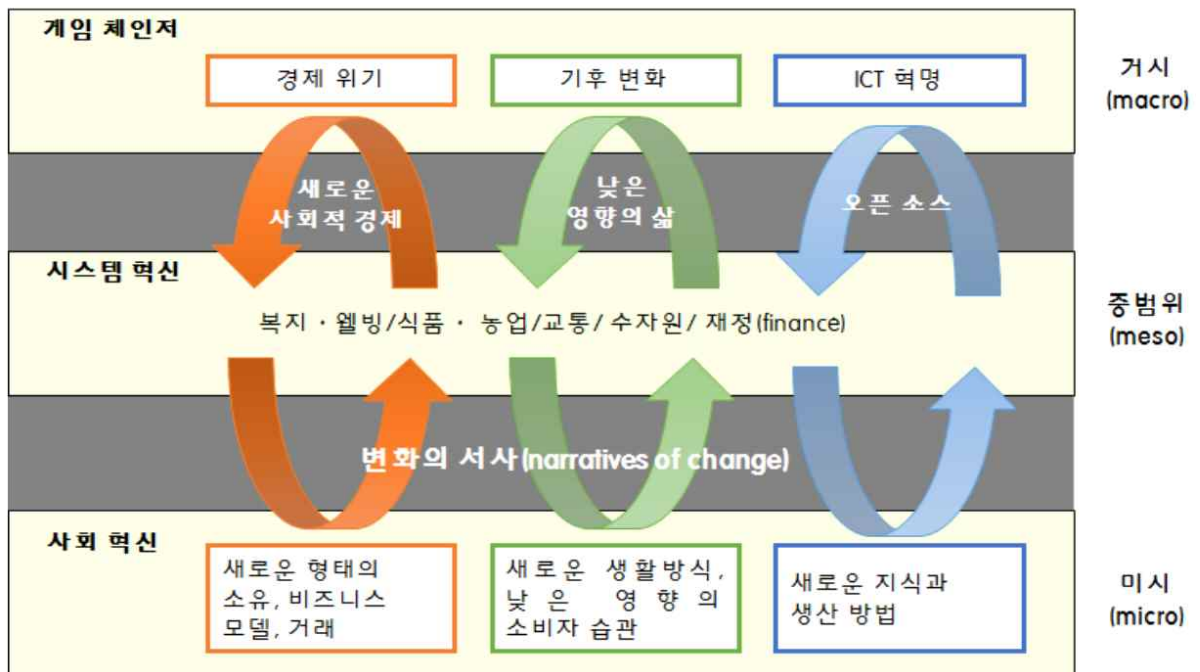
하는 과정이다. 이는 복합적 위기 상황에서 기존의 질서와 헤게모니를 넘어서 새로운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구조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환은 단순한 정책적 조정이 아닌, 근본적인 시스템 변화와 사회적 관계의 재구성을 수반한다.

TRANSIT에 구상하는 전환적 사회혁신(Transformative Social Innovation, TSI)은 사회적 상상력과 집합적 실천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변화를 추구하는 개념이다. 이 개념은 사회혁신이 이끄는 전환이 단일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층적이고 상호작용적인 과정을 통해 발생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TRANSIT은 전환이 진행되는 차원을 다층적이고 복합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 수준을 설정한다.

- **거시 수준-게임 체인저(Macro Level, landscape):** 경제 위기, 기후 변화, 기술 혁신 등과 같은 글로벌한 게임체인저가 사회 시스템의 근본적 변화를 유도한다. 이러한 요소들은 사회 전반에 걸쳐 구조적 전환을 촉진하는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한다.
- **중범위 수준-시스템 혁신(Meso Level, regime):** 복지, 교육, 교통, 에너지와 같은 제도적 시스템 내에서의 혁신이 이루어진다. 이는 기존 체제의 구조적 변화를 가능하게 하며, 미시적 실천과 거시적 변화 간의 연결 고리 역할을 한다.
- **미시 수준-사회혁신(Micro Level, niche):** 개인과 공동체의 실천, 새로운 생활 양식, 창의적 실험 등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이는 변화의 서사를 통해 사회적 상상력을 확장하고,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간다.

〈그림 1〉 전환적 사회혁신의 다층위 관점



자료: Avelino(2014: 4)

정병걸·송위진(2019)에서 재인용

다층적 관점은 변화가 단일한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다양한 수준에서 상호작용하며 발생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예를 들어, 기후 변화와 같은 글로벌 위기(거시 수준)는 도시의 에너지 정책 변화

(중범위 수준)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다시 개인의 소비 습관 변화(미시 수준)로 연결될 수 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변화가 일방향적인 흐름이 아니라 순환적이고 복합적인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기서 중요하게 고려할 것 중 하나는 이러한 흐름이 자연스레 물리적 차원에서 선순환하는 것이 아니라, 전환을 부정하고 억제시키려는 '반전환(anti-transformation)' 운동과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힘이 강력한 이유는 현재 가장 많은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기성 체제가 이 힘을 동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글로벌 헤게모니, 국가 장치와 각종 사회경제적 수단과 기재들을 동원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윤리적 코드, 습관, 욕망구조, 지식, 질병, 감정 등 미시적인 영역까지 개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2. 탈-투기적 도시화, 탈-행성적 도시화

탈-투기적 도시화(post-speculative urbanization)는 도시 개발을 단순한 자산 투기의 대상으로 보는 기존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공동체 중심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지향한다. 이는 주거 안정성, 사회적 포용성, 환경 친화성을 중심으로 한 도시 개발 모델을 포함하며, 부동산 투기로 인한 주거 불안정성과 공간적 불평등, 나아가 상품화된 공공재와 공적 서비스를 커먼즈 수준에서 재공영화하면서 개인의 사회적 삶과 돌봄 네트워크를 발전시키는 것을 추구한다.

탈-행성적 도시화(post-planetary urbanization)는 글로벌 자본 흐름과 초국적 개발 모델에 종속된 도시화 경향에서 벗어나, 지역 기반의 자립성과 생태적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는 전략이다. 이는 지역 공동체의 자율성과 분산적 네트워크를 통해 도시의 회복력과 자급자족 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것은 인간-비인간/자연의 관계를 급진적으로 재설정하는 것이며, 도시-농촌 관계 또한 기존 도시에 종속된 농촌의 독립성과 자립성, 나아가 대안적 삶의 모델 중 하나로 재구성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 1) 도시 스스로 해결 불가: 도농 관계의 전환

도시의 문제를 도시 내부에서만 해결하려는 시도는 한계에 직면해 있다. 이는 탈-투기적 도시화와 탈-행성적 도시화가 도시 자체의 한계를 넘어서는 이유이기도 하다.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도시와 농촌 간의 관계를 재구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도농 관계의 전환은 도시와 농촌 간의 불균형적 관계를 상호 보완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계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도시의 자원 집중과 농촌의 소외를 극복하기 위해 농촌의 생태적 가치를 재발견하고, 도시와 농촌 간의 상생 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장곡' 사례는 이러한 도농 관계의 전환의 방향을 제한적이지만 잘 보여주고 있다. 장곡과 '오누이친환경마을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 지역의 공동체적 삶의 변화 모습은(베이징 저장촌과는 또 다른 결에서) 도시와 농촌의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것은 저장촌이 베이징 도시개발에 의해 그 모습을 잃은 것과 달리, 장곡은 도시와 적대적이거나 모순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곡의 실험이 도시의 투기적이고 행성적 위기에 대응하는 중요한 대책 중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도시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도시 위기에 대응하는 중요한 그것은 바뀔 수 있

고, 어떻게 가능한지 전환적 사회혁신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예이다. 장곡 사례가 모든 걸 다 만족시키는 사례는 아니지만, 적어도 저밀도 사회로서의 농촌이 겪는 ‘소멸’ 위기와 투기적 도시화 위기, 그리고 정치 위기에 대응하는 어떤 가능성과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게 한다는 것으로도 그 의미는 충분하다고 본다.

### 3. 변화의 서사

변화의 서사(narrative of change)는 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단순한 비판이나 부정의 담론이 아닌,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을 제시하는 서사로 정의된다. 이러한 서사는 변화의 방향성과 목적을 명확히 하며, 사회 구성원들에게 새로운 상상력과 실천의 동기를 부여한다.

#### 1) 변화의 서사의 기능

- **미시적 변화의 확산:** 개인과 공동체 수준에서 발생한 작은 변화들이 중범위 및 거시적 차원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연결 고리 역할을 한다.
- **통치 서사의 해체:** 기존 통치·지배 서사의 무게를 견디며, 그 밀도를 약화시키고 해체하는 과정으로 작동한다. 이는 공간적 실천, 공간 재현, 재현 공간이라는 르페브르의 공간의 삼중성 차원에서 전개된다.
- **의미의 전복:** 기존 질서가 부여한 의미들, 예를 들어 추방, 남유, 탈구 등의 개념을 전복하고 새로운 의미로 재구성한다.

#### 2) 신화로서의 변화의 서사

변화의 서사는 이러한 다층적 상호작용을 연결하고, 사회적 상상력과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도구이다. 이는 단순한 이야기나 담론을 넘어서, 각 수준의 변화가 어떻게 상호 연결되고 새로운 사회적 의미와 가치를 창출하는지를 설명하는 방식이다. 변화의 서사는 사회 구성원들이 변화를 인식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며, 공동체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과거 1960년대 박정희 정권이 만일 ‘잘 살아보세’라는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언술이 아니라, ‘가난은 위험해’라는 부정적 언술만을 강조했다면 새마을 운동에 사람들이 그토록 헌신적이고 열정적으로(정권이 강제적이고 위협적으로 동원한 것도 배제할 순 없지만) 참여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즉, ‘가난은 위험해’라는 언술은 가난한 자가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드러내면서도, 그런 위험을 자초한 위험한 자라는 의미화 작용도 수반될 수 있어서, 이들 스스로 가난에 대응하고자 하는 의지도, 어떤 방향으로 탈가난을 해야할지도 분명치 않다. 하지만, ‘잘 살아보세’는 새마을 노래와 함께 ‘초가집’도 고치고, ‘마을길’도 높여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를 위해 다른 자원보다 우선 ‘근면’하고, 다른 힘 없이 스스로 ‘자조’해서, 우리끼리 ‘협동’하면 된다는 걸 명시한다.

사례로 보여줄, 장곡 주민들 또한 오랜 시간 도덕 경제, 종교적 영성, 전통적 위계성을 넘어선 서로 돌봄의 관계를 익히면서, 적어도 자신들이 만들고 유지하려는 마을이 도시적 필요를 효과적으로 만족시키는 능력을 갖추기보다 마을 주민들 스스로 만들어갈 이상적 목표와 변화의 서사를 자신들



스스로의 학습과 토론을 통해 끊임 없이 만들어 가고 있고, 외지인과의 개방적 교류를 통해서 자신들의 목표와 서사를 성찰해 나간다. 더 눈여겨 볼 것은 이런 이상적 목표와 변화의 서사가 생성되는 장소와 과정이 어떤 공식적 장소와 절차가 아니라, 일터, 식당, 학습장, 집, 공연장 등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실천(일, 식사, 차담, 공동 학습, 공연, 친목 교류 등)을 통해서 얻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변화의 서사는 ‘전환’을 촉진하고 지속시키면서 동시에 이 전환을 막는 여러 장애를 돌파하고, 이 장애물과 난제를 ‘전환’ 차원에서 해석하는 기능을 제공하기도 한다. 변화의 서사의 이 기능은 전환을 추진하는 주체들이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전환의 목표 차원에서 상시적으로 파악하고, 외부 장애물의 의미 또한 보다 정확히 인식해서 자신들의 행위를 둘러싼 불확실성이나 불안을 제거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이 기능은 마을을 공간적으로 재구성하고, 건축물을 설계하고 구축할 때도 전환의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변화의 서사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처한 상황, 장소, 공간이 왜 ‘전환’이 요구되고, 어떻게 시작해야하는가에 대한 담론적 힘을 제공한다. 즉 전환이 시작하는 모멘텀을 담론적으로 마련한다. 이런 차원에서 변화의 서사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통해 전환을 촉발한다.

- **한계의 가시화:** 주어진 장소에서 기존 질서의 모순과 한계를 드러냄
- **대안적 실험:** 새로운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실천의 가능성을 보여줌
- **관계와 가치 창출:** 기성 시각을 넘어서 주체와 조건에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부여함
- **주체 역량 강화:** 주체의 기성 주체위치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새로운 수행성이 가능한 주체로 호명함. 이를 통해 탄생한 새로운 주체는 여러 관계과 자원을 동원해서 기성 조건을 전복하면서 전환을 태동할 수 있음. 이는 주체가 기존에 해왔던 자신들의 삶과 행위, 정부 및 타자와의 관계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게 하며, 변화의 서사를 함께 생성하는 과정에서 주체의 지적 역량과 공동체적 협력의 정서가 커져갈 수 있음

## 4. 전환 거점

### 1) 전환 거점

전환이 발생하고 전환의 복합적 과정의 모체가 되는 전환 거점은 단순한 물리적 장소나 실험적 공간을 넘어서는 개념이다. 이는 신자유주의 헤게모니와 투기적 도시화가 지배하는 기존 질서 속에서, 대안적 삶의 가능성이 실천되고 새로운 정치적 주체성이 형성되는 특별한 공간적 결절점이다.

전환 거점은 르페브르의 (H. Lefebvre)의 ‘헤테로토피아(heterotopia)’ 개념과 그람시의 ‘진지전(war of position)’ 개념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르페브르의 헤테로토피아는 기존 질서의 논리가 이질적인 것이고 재조정되어야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공간이다. 신자유주의 투기적 도시화의 차원에서보면 투기적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발생하지 않는, 오히려 그런 가치를 떨어뜨리는 공간이다. 관광단지로 개발되지 않은 낙후된 농촌, 고밀도 수직 상승형 개발 되지 않은 원도심, 사람들이 다양하고 자유롭게 이용하는 공터나 광장 등이 헤테로토피아의 사례이다. 또한 기존 통념과 윤리적 기준에 따라 설계된 공간을 깨뜨리는 공간, 예를 들어 ‘젠더 프리 화장실’, ‘경의선 공유지’, ‘광화문 세월호 추모공간’, 여러 시위나 점거가 발생하고, 소유권에 기반하고 상품가치만을 발생하는 장소를 문화적으로 점유한 장소 등 또한 헤테로토피아의 사례다. 기성 질서 차원에서 볼 때 불필요

하거나 효율성이 떨어지지만, 동시에 기성 질서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이에 대항하고 어떤 대안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환 거점은 분명 헤테로토피아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전환 거점은 '진지전'의 진지로서 의미가 있다. 이는 내가 앞서 언급했듯이 하나의 전환 거점이 모든 해법을 담고 있지 않기에 여러 전환 거점이 서로 유기적으로 얽혀야 대안 세계라 조금씩 커져갈 수 있으며, 이 거점들이 각각 만들어지고, 서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정치적 주체가 탄생하고, 대안적 진보정치 자체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전환 거점은 변화의 서사를 중심으로 기존 질서, 도시, 농촌을 지배하는 도시 구성체를 대안적 도시 구성체로 전환하는 역할을 포함한다. 즉 신자유주의 도시화에 따른 약탈적 도시 구성체에 대항하기 위해, 전환 거점은 대안적 도시 구성체의 중요한 거점이자 결절점이다. 이는 붕괴된 공통 세계의 회복과 주체의 위기 극복을 위한 토대가 된다.

## 2) 전환 거점 필요성

### ① 착취와 차별의 현장을 해방의 현장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 현재의 도시 공간은 프리케리아트의 착취와 차별이 구조화된 공간이다. 투기적 도시화로 인한 주거 불안정성, 공공 서비스의 시장화, 커뮤니티의 해체는 이들의 삶을 더욱 취약하게 만든다. 전환 거점은 이러한 취약성을 극복할 수 있는 물적 기반을 제공하고, 상호 돌봄과 연대의 관계를 복원함으로써 해방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 ② 예시적, 표현적, 시범적 실천 방식을 통해 대항 운동과 대안 세계 구축에 필요한 자원과 경험을 생성하기 위해서

- 전환 거점은 대안적 실천의 구체적 모델을 제시한다. 장곡의 경우, 조직 구성 방식의 혁신, 상호 출자 관계를 통한 연결망 구축, 변화의 서사를 위한 비공식적 교류와 공동 학습 등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 모델을 창출한다. 이는 단순한 자원 동원 수준을 넘어 대안 세계를 감각적으로 경험하고 확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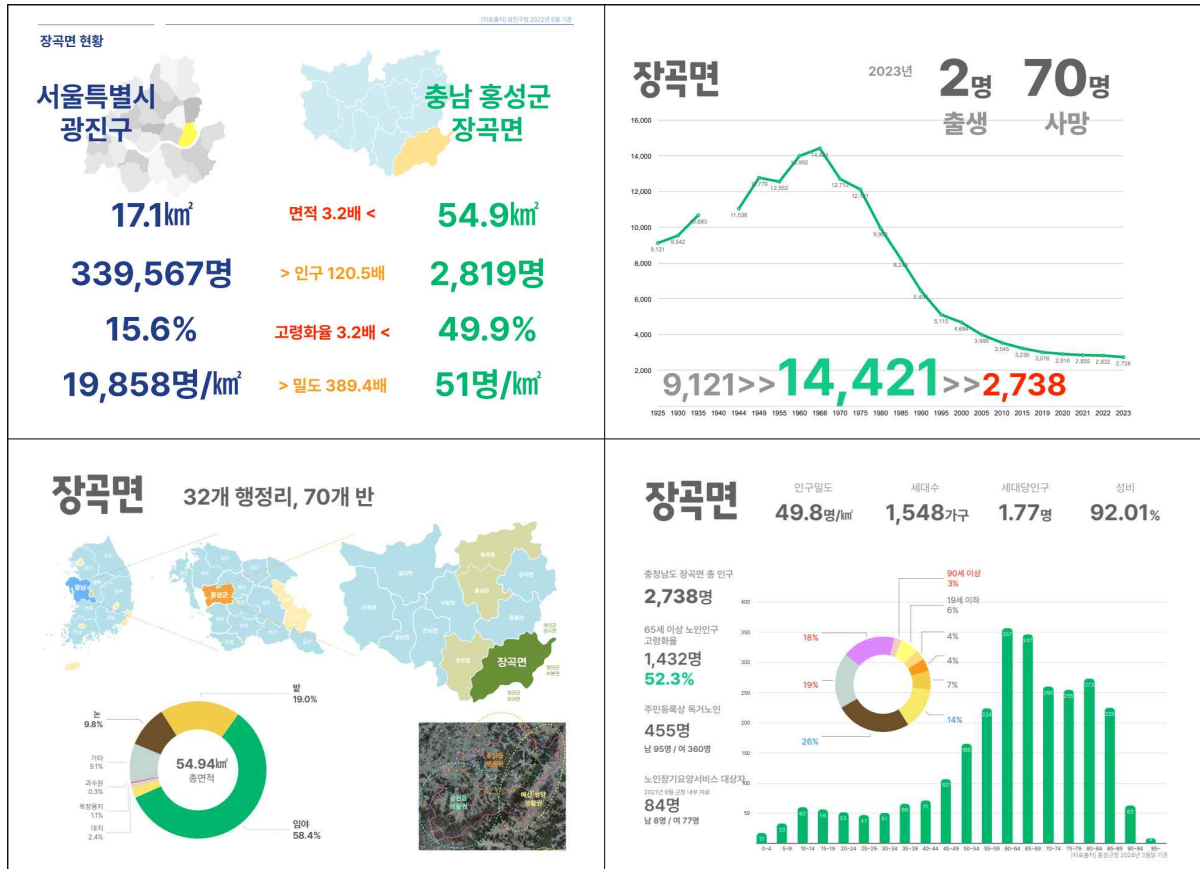
### ③ 전환 거점의 연결을 통해 신자유주의 헤게모니 질서를 넘어선 대안 세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 개별 전환 거점의 실험이 보다 광범위한 사회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거점 간 연결이 필수적이다. 전환 거점은 불안정하고 취약해진 사람들, 특히 기성 진보정당 주체들에게 필요한 대항력과 대안 자원을 제공할 중요한 진보정치의 거점이 될 것이다. 이 거점들을 연결하는 활동, 그리고 연결을 통해 만들어지는 활동이 새로운 진보정당과 진보정치의 활동일 수 있다. 또한 이 거점 연결망이 더 복잡해지고 더 커지고, 그래서 새로운 진보정당의 역할 또한 커져가는 것이 과두제 부르주아 정당이 지배하는 정치 규칙을 넘어서 진보정치 규칙으로 세상을 바꾸고 국가를 더 좋은 공통세계로 발전시키는 방안 중 하나일 것이다.

# 4장 전환 거점 사례-장곡면, 그리고 ‘오누이친환경마을협동조합’

## 1. 장곡면 개요

### 1) 장곡면 현황 - 인구 변화를 중심으로



충청남도 홍성군 장곡면은 전통적인 농촌 마을로서 32개 행정리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장곡면의 인구는 약 2,700명으로, 고령 인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1925년 인구 9,121명에서 1970년 14,421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23년에는 2,738명으로 감소하였다. 출생률은 현저히 낮으며, 2023년에는 출생 2명, 사망 70명의 통계가 보고되었다. 이로 인해 고령화율은 52.3%로, 주민의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에 해당한다. 이는 매우 높은 수준의 고령화 상태이며, 90세 이상 인구도 3%에 달한다. 주민등록상 독거노인은 455명(남 95명, 여 360명)이며,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는 84명(남 8명, 여 77명)으로 확인된다. 인구학적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장곡면은 장곡면은 전통적인 농촌 경제를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노동력이 부족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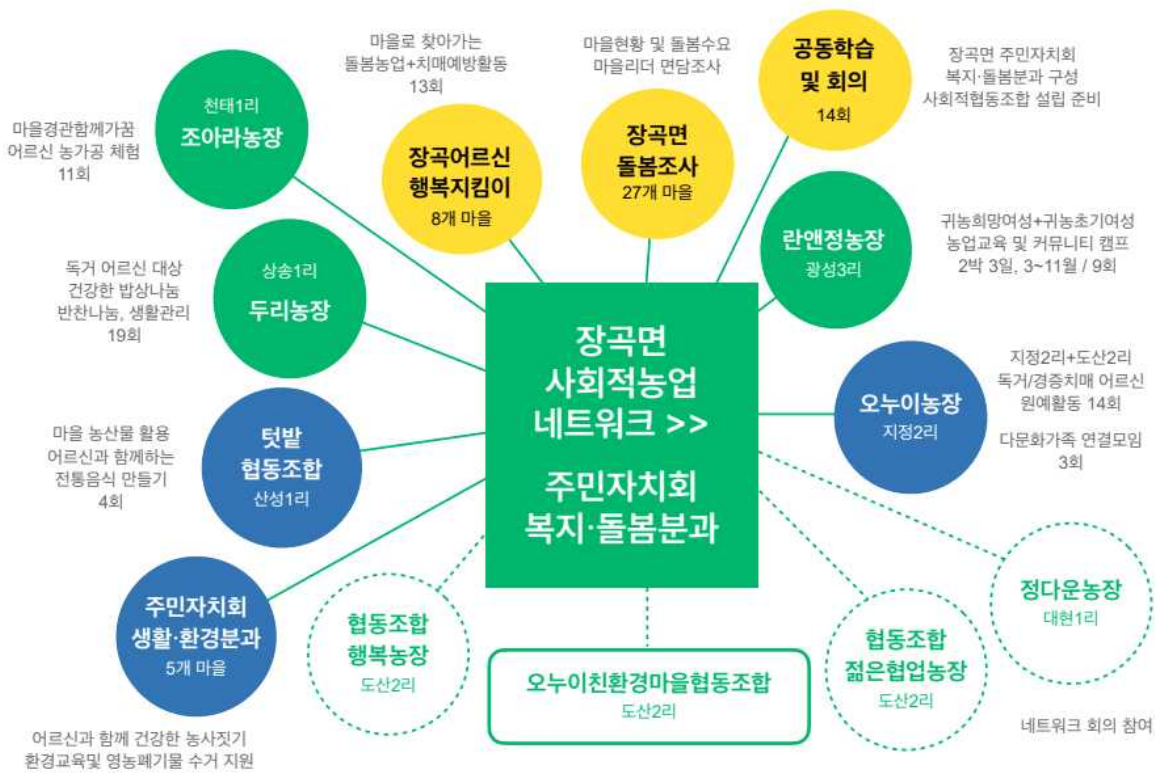
장곡면의 이러한 상황을 좀 더 감각적으로 보기 위해 서울시 광진구와 비교해보자. 광진구 면적은 17.1km<sup>2</sup>이며 인구는 339,567명이다. 인구밀도 기준으로는 19,858명/km<sup>2</sup>이다. 이에 비해 장곡면의 면적은 광진구에 비해 3.2배가 큰 54.9km<sup>2</sup>이지만, 인구수는 광진구의 1/120조차 안되는 2,700여명에 불과하다. 인구밀도 기준으로 보면 장곡면은 광진구 인구밀도의 약 1/390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고령화율도 광진구는 15.6%에인데 비해 장곡면은 49.9%로서 3.2배가 높다. 도시와 농촌이라는 공

간적 특성이 다를 수 있음에도, 장곡면은 광진구 거주민이 누리는 기본적인 사회경제문화적 삶을 장곡면 안에서 자족하기에는 엄청난 한계와 부족함이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장곡면은 도시와는 너무나도 다른 소위 '저밀도 사회'로서 면 거주민들이 필요한 공적 서비스와 사회경제문화적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과 관계를 어떻게 자급해나갈 수 있을지가 현실적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다가왔다고 할 수 있다.

## 2) 장곡면 사회적농업 네트워크

장곡면의 농업 기반 경제적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간단하게나마 사회적농업 네트워크를 파악해 보자. 대부분 한국 농촌 마을이 그렇듯 인구감소와 초고령화 상황에서 농촌 경제는 주민 복지 및 돌봄 체계와 유기적으로 결합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장곡면 사회적농업 네트워크는 농업 기반, 주민 자치회, 돌봄이 결합된 네트워크 구조를 아래 그림과 같이 구축하고 있다. 이 네트워크가 장곡면 농업경제 모두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장곡면의 농업 생태계가 어떻게 돌봄 및 주민 자치와 조화를 이뤄나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 2021년 장곡면 사회적농업 네트워크



## 3) 장곡면 주민자치회

장곡면 주민자치회는 지역사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운영하는 조직으로, 장곡면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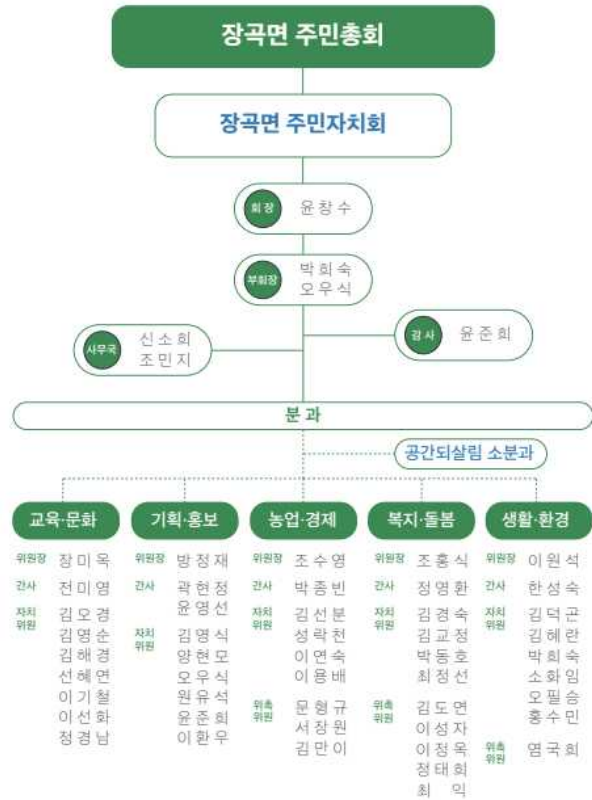
# 장곡면 주민자치회

## 장곡면 주민자치회 개요

- 근 거: 「홍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창립 일: 2020. 11. 26 (장곡면 주민자치위원회 → 주민자치회 전환)
- 1기 위원현황: 39명 (2022. 3. 기준)
- 1기 위원 임기: 2년 (2020.11.26 ~ 2022.11.25.)

## 주요 연혁/활동

- 19년 11월~20년 2월 장곡면2030발전계획 수립, 자치회 전환 논의
- 20년 3월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선정
- 20년 11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
- 20년 12월 회장, 부회장, 감사, 사무국장 등 임원진 구성
- 21년 1~3월 회칙 제정, 분과 조직 및 주민자치회 조직 정비
- 21년 04월 분과회의/임원회의/정기회의 운영, 지역사회 연대활동
- 21년 11월 마을로 찾아가는 제1회 장곡면 주민총회 개최  
총 32개 마을, 536명 참여
- 2022년 홍성군주민참여예산 선정
  - 1) 취약계층 생활환경복지서비스 <행복나눔 공동발래방>
  - 2) 소통과 자치의 마중물, 주민이 만드는 <월간 장곡소식>
- 22년 1월 장곡면 주민자치회 1기 위원 추가 위촉 8명



- 조직 구조: 주민총회, 주민자치회, 그리고 교육·문화, 기획·홍보, 농업·경제, 복지·돌봄, 생활·환경 등 5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분과는 다양한 지역 현안과 과제들을 논의하고 실천한다.
- 장곡면 2030 발전계획 수립: 살기 좋은 장곡면을 목표로 한 비전과 전략을 수립.
- 주민참여 확대: 마을 총회, 주민 자치 회의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반영.
- 복지 및 환경 개선: 지역 돌봄 체계 구축, 환경 개선 사업 추진.

이러한 주민자치회 활동은 장곡면 총 32개 마을이 각각 전통적인 차이와 다양성을 유지하면서도 점점 더 매우 예민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는 각 마을의 저밀도 경제 구조의 충격을 협력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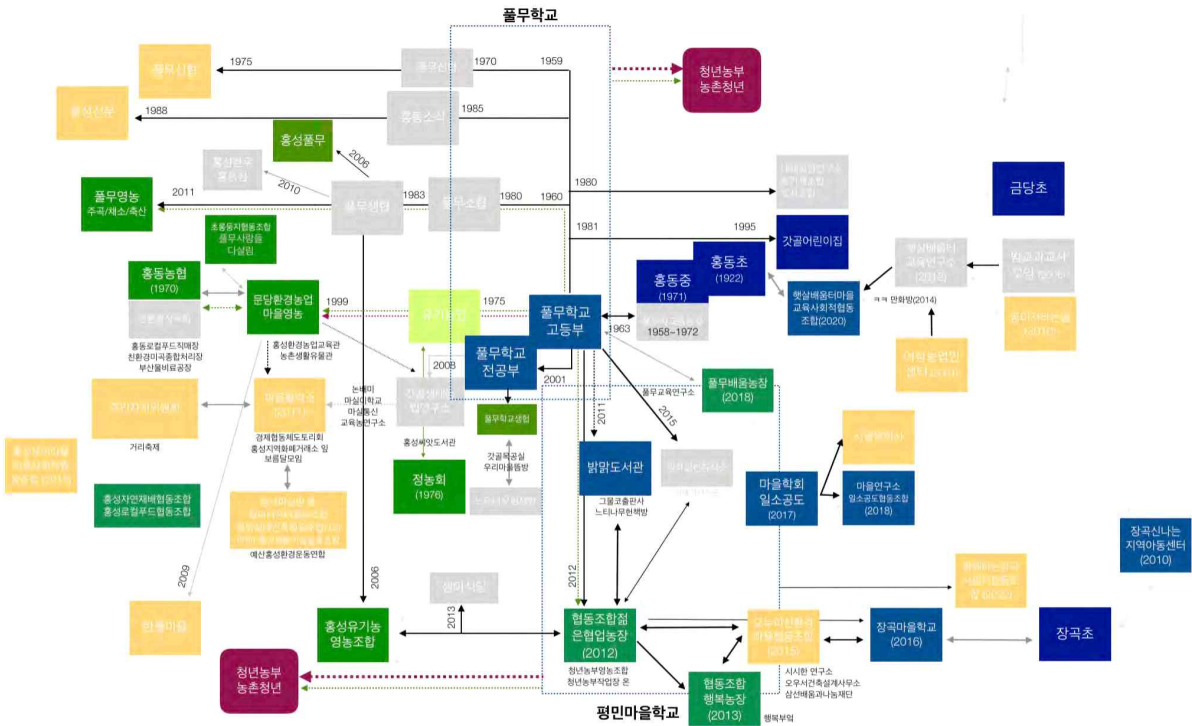
## 4) 함께하는 장곡 사회적협동조합의 사회적 협동사업

‘함께하는 장곡 사회적 협동조합(이하 ‘함께장곡’)은 이웃이 서로 살피고 함께 돌보는 건강하고 정다운 장곡면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1기 장곡면 주민자치회 복지·돌봄분과에서 시작한 사회적 협동조합이다. 급속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응이 시급했던 장곡면은 주민자치회 자체적으로 ‘장곡면 2030 발전계획 수립 공동학습회’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함께장곡 설립을 결의하게 되었다. 함께장곡은 무엇보다 장곡면 노인 돌봄 활동이 시장 영역에서 공공 영역으로 옮겨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다양한 노인돌봄 사업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결하고 ‘돌봄반장’ 기능을 활용해서 진행한다. 특히 마을에 여러 사회적 농장을 만들어 사회적 농업을 활성화하면서, 장곡면 사회적 경제 농업 네트워크와 노인 및 취약계층 나아가 모든 주민의 돌봄 서비스를 결합한 복합적 마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 함께하는장곡 사회적협동조합 사업 (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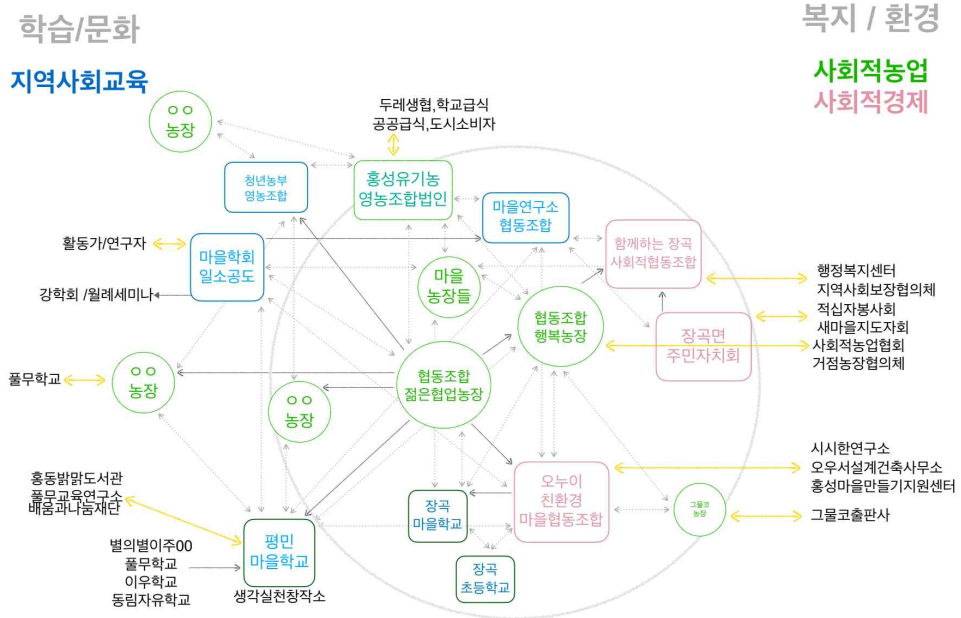
## 5) 전환 거점으로 장곡면의 주요 조직과 네트워크



장곡면을 전환 거점으로 사고하기 위해서는 단지 위에서 나열한 장곡면의 사회적 농업 경제, 돌봄, 주민자치회 활동만으로 부족하다. 장곡면을 전환 거점으로 볼 수 있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이곳이 1958년 ‘풀무고등공민학교’로 출발한 ‘풀무학교’의 존재와 영향력이다. 첫째, 풀무학교는 흥동면과 함께 장곡면이 전환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일종의 ‘변화의 서사’의 진원지라 할 수 있다. 풀무학교는 독특한 영성적 가치에 기반한 농민(평민, 사람) 중심 사상을 흥동면과 지역 농촌 사회에서 교육 및 자치 활동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이를 통해 이 지역의 독특한 자립-자족적이며 민주-평민적 경제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나갔다. 이는 지역 내에서 ‘도덕 경제’가 중요한 가치가 되고, 교육을 계기로 들어온 외지인들이 이 지역에서 함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어울려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지금까지도 풀무학교는 교육활동을 통해 외부와 이 지역을 연결하는 중심축이자 변화의 서사를 지속하는 근거지로서의 역할을 하며, 교사, 학생, 여러 이해관계자로서 풀무학교와 인연을 맺은 사람들이 이 지역에 여러 교육, 경제, 자치, 돌봄, 복지에 기여하는 상호 부조 조직을 만들어 나가면서 풀무학교는 유무형의 외연 또한 확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풀무학교는 장곡면이 흥동면과 다층적으로 협력관계에 있도록 하는 중간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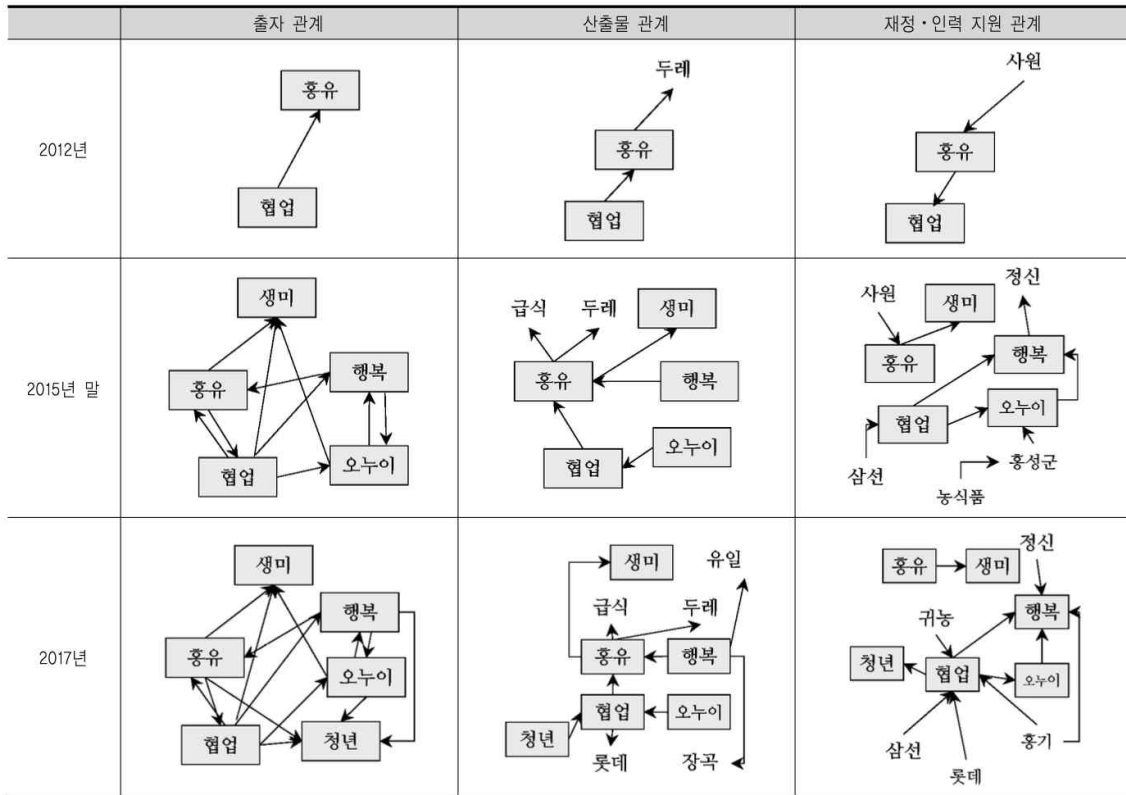
풀무학교를 진원지로 해서, 장곡면에는 흥동면과의 교집합을 이루면서 여러 조직들이(혹은 흥동면에서 조직이 만들어지면서 장곡면의 주요 활동장소로 사용되는 조직들이) 만들어져 나갔다. 발암도서관, 흥동유기농영농협동조합, 평민마을학교 등 흥동면을 기반으로 하는 조직에서부터, 협동조합 젊은협업농장, 협동조합 행복농장, 청년농부 영농조합, 흥성유기농 영농조합법인, 마을연구조합, 마을학회 일소공동체, 마을연구조합, 함께하는 장곡 사회적협동조합, 행정복지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적십자봉사회, 새마을지도자회, 사회적협업협회, 거점농장협의체, 풀무학교, ○○농장, 활동가/연구자, 강학회 /월례세미나, ○○농장, ○○농장, ○○농장, 협동조합 젊은협업농장, 협동조합 행복농장, 장곡면 주민자치회, 시시현연구소, 오우서설계건축사무소, 흥성마을만들기지원센터, 흥동발암도서관, 풀무교육연구소, 배움과나눔재단, 평민마을학교, 별의별이주00, 풀무학교, 이우학교, 동림자유학교, 장곡 마을학교, 장곡 초등학교, 오누이 친환경 마을협동조합, 그들부, 그들부 부장, 그들부출판사



### 7) 장곡면과 흥동 일대 지역사회 조직 협력 연결망 구조

장곡면을 전환 거점으로 볼 수 있는 독특한 특징 중 하나는 바로 풀무학교를 진원지로 해서 만들어진 장곡면과 흥동면 일대(혹은 장곡면)의 조직이 협력하는 방식과 이를 통해 만들어진 협력 연결망 구조다. 이 연결망은 앞에서 설명한 장곡면 사회적 농업 네트워크, 주민자치회, 함께장곡과 일부는 교집합을 이루고 있지만, 다른 한편 (필자가 현재까지 파악하기에) 이 지역의 전통적인 가치나 관습과는 달리 풀무학교의 변화의 서사에 좀 더 강하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이 변화의 서사를 일종의 중요한 신조로 받들이면서 만들어낸 연결망이다. 이것은 의식적으로 기획된 연결망이라기 보다 한편으로 저밀도 경제사회에서 파편적이고 폐쇄적인 경제단위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외적 도전과

제, 다른 한편으로 저 변화의 서사에 따라 ‘공생공락’을 위해 비자본주의적 이해관계를 통해 일정한 희생과 어려움을 감수하더라도 함께 협동하는 것, 그리고 그 핵심에는 수평적인 연대와 환대가 있다는 것이 중요한 도덕 경제의 핵심임을 윤리적으로 체득한 사람들의 공동체적 태도에 의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림 2〉 장곡면 일대의 지역사회 조직 협력 연결망 구조

주: 급식(흥성군학교급식지원센터), 귀농(서울 소재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농식품(농림축산식품부), 두레(두레생협), 롯데(롯데슈퍼), 사원(사회적기업 진흥원), 삼선(삼선재단), 생미(생미식당), 오누이(오누이 권역협동조합), 유일(흥성군 소재 장애인 요양시설 유일원), 장곡(장곡초등학교), 정신(충남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청년(청년농부영농조합법인), 홍유(흥성유기농영농조합법인), 협업(젊은협업농장), 흥기(흥성군농업기술센터), 흥성군(흥성군청), 행복(행복농장).  
 자료: 김정섭 외(2017: 106)의 내용을 수정.

사회적 농업, 농업과 농촌의 탈영토화. 김정섭, 농촌지도와 개발, 2018

위 그림은 김정섭이 장곡면 일대를 연구하면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이 지역에서 나타나고 변해간 조직 간 협력 연결망 구조다. 이 구조를 먼저 간단히 살펴보자.

- **2012년:** 출자 관계에서는 ‘협동조합 젊은협업농장(협업)’이 ‘흥성유기농영농조합법인(홍유)’에 일 방향으로 출자하는 단일한 협력 구조가 형성되어 있었다. 산출물 관계에서도 ‘협업’이 ‘홍유’에게 그리고 ‘홍유’가 ‘두레생협(두레)’에게 생산된 농산물을 공급하는 구조였으며, 재정 및 인력 지원 관계에서는 ‘사회적기업 진흥원(사원)’이 홍유를 지원하고, 홍유가 협업을 지원하는 일방적 관계였다.
- **2015년 말:** 이 시기가 되면 몇몇 단일한 일방향 관계가 복잡한 쌍방향 구조로 바뀐다. 우선 출자 관계에서는 ‘홍유’와 ‘협업’이 쌍방향 관계로 바뀌었으며, 여기에 ‘생미식당(생미)’, ‘협동조합 행복농장(행복)’, 그리고 ‘오누이 권역협동조합(오누이)’가 새롭게 등장한다. ‘생미’는 ‘홍유’, ‘협



업', '오누이'로부터 일방향으로 출자받고, 협업은 '행복'과 '오누이'에게 일방향으로 출자하고, '행복'은 '홍유'와 '오누이'에게 출자한다. '오누이'와 '행복'은 상호 출자 관계로 시작한다. 산출물 관계에서는 2012년 관계에서 '홍유'는 '홍성군학교급식지원센터(급식)'과 '생미'에 생산물을 추가 공급하고, '행복'은 '홍유'에, '오누이'는 '협업'에 생산물을 공급한다. 재정 및 인력 지원의 경우, '홍유'는 '협업' 대신 '생미'를 지원하고, 대신 '삼선재단(삼선)'이 '협업'을 '협업'은 '행복'을, 그리고 '행복'은 '충남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정신)'을 지원한다. '협업'은 또한 '오누이'를, '오누이'는 '행복'을 지원한다. '오누이'는 '협업'뿐만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과 '홍성군청(홍성군)'의 지원을 받는다. 이로 인해 조직간 출자, 생산물 공급, 재정 및 인력 지원 연결망은 다각화되어 갔다.

- **2017년:** 이 시기에는 '청년농부영농조합법인(청년)', '롯데슈퍼(롯데)', '홍성군 소재 장애인 요양 시설 유일원(유일)', '서울 소재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귀농)', '장곡초등학교(장곡)'이 새롭게 등장한다. 출자 관계의 경우 2015년도 관계에서 '홍유', '행복', '오누이'는 '청년'을 추가 지원한다. 산출물 관계에서는 '협업'은 '롯데'에 추가 공급하고, '청년'이 '협업'에 생산물을 공급한다. '홍유'는 '생미'에 추가 공급하고 '행복'은 '장곡'과 '유일'에 추가 공급한다. 재정 및 인력 지원의 경우, '협업'은 '삼선', '롯데', '흥기', '귀농' 등에서 다각적으로 지원받고, '청년', '오누이', '행복'을 지원한다. '행복'은 '흥기'와 '정신'에게서 지원을 받는다. '정신'과 '행복'의 관계는 뒤바뀌었다. 홍유는 '사원'의 지원을 더 이상 받지 않게 된다.

이러한 조직 협력 연결망 구조의 변화와 동학은 저밀도 사회에서 서로 어떻게 협력하면서 필요한 서비스, 시장, 자원, 인력을 어떻게 상호보완해나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좀 더 오랫동안 그리고 깊게 관찰해나가야 하겠지만, 이런 독특한 지속가능 협력 연결망은 일반적인 투자형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주 새로운 방식도 아니다. 스페인이나 이탈리아와 같은 협동조합이 발달된 경우, 필요한 서비스의 독립성과 안정성을 마련하기 위해, 하나의 종합적 단일체 만들기를 피하면서, 분산-모듈형 상호 출자 방식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중요한 건 이 방식이 이 지역 저밀도 경제 구조에서도 일정한 전환 거점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경제적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이고, 나아가 이 관계는 즉흥적인 정부 정책 사업으로 단기간에 조성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언급했듯이 풀무학교의 역사와 함께하는 변화의 서사가 마을과 주민에게 스며들어가는 오랜 시간과 그 시간만큼의 일상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8) 장곡면 면 단위 돌봄체계 구성안:

전환 거점으로서 성장하는 장곡면의 이와 같은 활동들은 자신들의 변화의 서사에 기반해서 독특한 장곡면 돌봄 체계를 구상한다. 이는 다양한 계층과 집단을 포괄하는 통합적인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이 체계는 지역사회 돌봄, 교육, 복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며, 1970부터 전개되어 '바실리아법(정신병원 폐쇄 규정 법안)'으로 이어진 이탈리아 정신병원 개혁 운동, 2010년대 영국 프롬(Frome)에서 전개되었던, 특히 팬데믹 시대에 큰 효과를 만들어 낸, 의료진, 자원봉사자, 지역 주민이 협력해서 여러 형태의 지역 사회적 고립자를 돕는 '컴패션 운동(Compassionate Frome Project)', 정신질환자와 지역 사회가 함께 살아가는 일본 훗카이도 우라카와 지역의 '베델의 집'과의 적지 않은 교집합을 보이는 구성안이다.<sup>9)</sup>

이는 이 사례들이 보여주듯 단순히 정부 지원과 민간위탁 방식만이 아니라, 주민들의 내밀하고 개방적인 상호협력 방식, 그리고 무엇보다 서비스 제공자와 수혜자의 일방향적이고 위계적인 방식을 넘어선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상호 돌봄 방식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래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텃밭, 청년 및 귀농 여성 지원, 사회적 농장 및 장애인 지원, 노인 돌봄 시스템, 아동 및 청소년 지원, 주민 자치 및 돌봄 협력, 이동 및 생활 서비스 지원 등이 특정 시설을 중심으로 일방향으로 진행되는 위계적 서비스 공급 방식이 아니라, 경제적 삶과 사회적 삶이 어우러진 수평적이고 다양한 문화적 삶을 기반으로 형성된 사람들의 자유로운 일상의 동선들의 얽힘 그 자체가 통합적이면서 안전한 면단위 돌봄체계를 구성한 방식으로 보여진다. 이는 저밀도 경제사회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돌봄의 제1가치인 개개인의 존엄성과 공동체의 지속가능성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9) 프롬 사례에 대해서는 『누구도 홀로 외롭게 병들지 않도록: 영국 사회를 뒤흔든 프롬 마을의 캠페인 프로젝트』(줄리안 아벨, 린지 클라크, 2021. 이지혜 옮김. 남해의 봄날)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2. 도산2리 ‘오누이친환경마을협동조합’ 개요



### 1) 오누이친환경마을협동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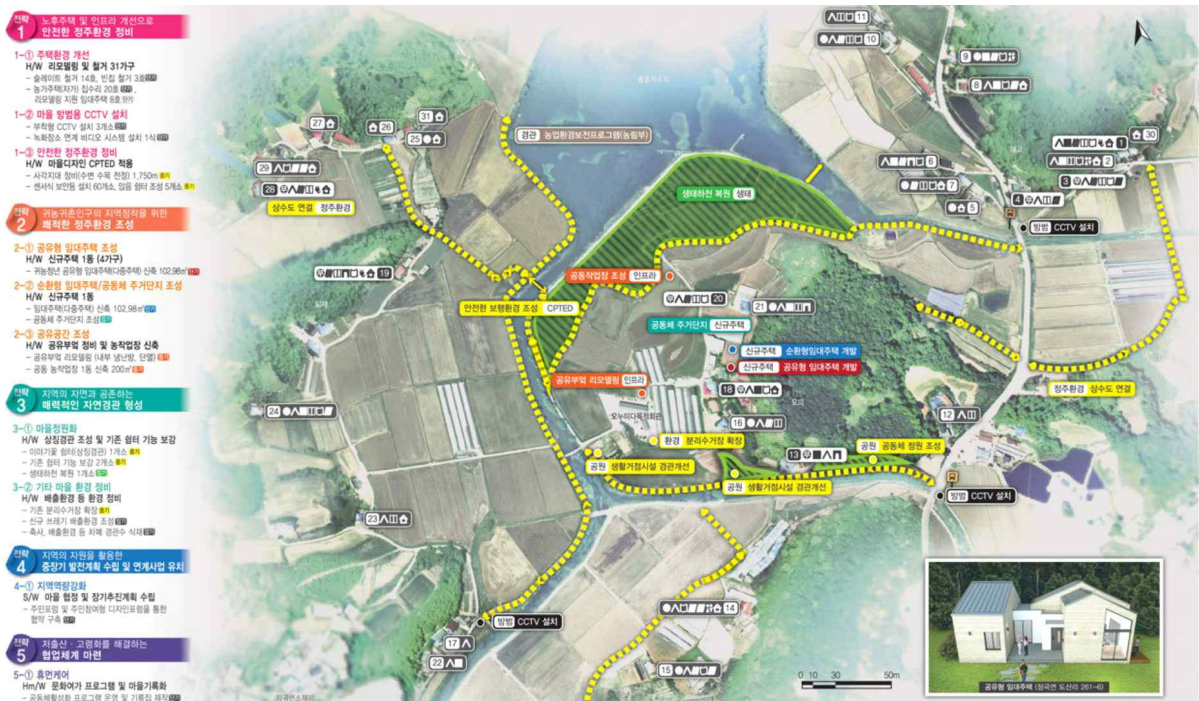
오누이친환경마을협동조합(이하 ‘오누이 협동조합’)은 2016년 장곡면의 4개 마을(도산2리, 신동리, 지정리1, 2리)을 대상으로 시행된 오누이 권역 단위 종합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을 관리하고 권역사업 집행과 후속사업 연계를 위해 만들어진 협동조합 법인이다.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로는 오누이커뮤니티센터와 숙박시설을 포함한 예절교육관, 공동 식사와 음식체험이 가능한 행복부엌, 그리고 공동작업장 등이 있으며, 커뮤니티센터 내의 다목적회관에서는 다양한 공동체 학습·문화·활동이 이루어지고, 사무동에는 농업·농촌 관련 협동조합과 단체들이 입주해서 농사와 마을 활동 및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센터는 도농교류 활동과 청년·농업·농촌 교육활동,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하는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거점 공간으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커뮤니티센터 공간에는 여러 단체들이 입주해 있으며, 여러 협업을 통해 지역 사회 협력 생산 및 돌봄 시스템을 자생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장곡마을학교, 협동조합 젊은협업농장, 마을학회 일소공도, 청년농부영농조합, 삼선재단, 협동조합 행복농장, 시시한 연구소, 농업회사법인 키움주식회사, 플랜비 등이 있으며 이들과 연관된 타 지역 단체들이 지역을 방문하고 공간을 활용하면서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다.



## 2) 주요 활동



- 정주활동 1-정주환경개선 공동체활성화 사업: 도산2리에서 2018~2020년까지 진행된 사업으로 노후화된 주택들을 리모델링하고 청년들이 지낼 수 있는 처년임대주택을 건축한 사업으로서 - 주택환경 개선, 공유형 임대주택 조성, 마을 방범용 CCTV 설치, 지역역량강화 사업 등을 추진했다.
- 정주활동 2-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사업): 농촌생활 환경 개선 대표 모델로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정비, 누구나 머물고 살고 싶은 정주 환경 조성, 삶과 자연이 어우러진 마을경관 형성,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공동체 마을 만들기 등의 개발 전략과 함께, 빈집정비, 슬레이트 지붕개량, 집수리, 상수도 정비, 재래식화장실 정비, 마을 공용 농작업장 조성, 마을 방범용CCTV 설치, 보행등 설치, 순환형 임대주택 신축, 생활쓰레기집하장 설치, 마을공동 오수처리시설 설치, 노후 담장 정비, 마을 정원 조성, 생태 인공습지 정비, 공유식당 리모델링, 마을회관 지붕방수, 문화복지 프로그램, 기록집제작, 주민포럼 및 주민디자인워크숍 등의 사업을 추진해왔다.

### 세부사업

#### 01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정비

- 빈집 정비 8호  
폐가 2호 포함
-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 17호  
기초생활계층 1호  
자상위 계층 1호  
20년 이상 주택 15호
- 집수리 13호  
기초생활계층 1호  
자상위 계층 1호  
일반계층 11호
- 상수도 정비
- 재래식 화장실 정비

중남영 정주환경개선 모델 사업사업자 연계

#### 03 삶과 자연이 어우러진 마을경관 형성

- 마을정원 조성  
마을주민들과 함께 개마 울진 단가 푸기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연계구 유랑관리활동,  
농가소득으로만 결
- 생태인공습지 정비
- 생활쓰레기집하장 설치
- 마을 공동 오수처리시설 설치
- 노후담장 정비

#### 02 누구나 머물며 살고 싶은 정주환경 조성

- 순환형 임대주택 신축  
지속적인 인구 유입 대응  
장년 귀농인 정착 인프라 구축  
자립 이전 독산 귀농귀촌인  
15호 4개실  
오농이전환형마을공동체운영관리
- 마을공동 농기계 창고
- 방범용 CCTV 설치
- 보행등 설치

#### 04 주민 주도의 지속가능한 공동체 마을

- 공유식당 리모델링  
마을 공유부엌  
계절별 공동급식  
일자리 창출  
독거가구 돌봄
- 마을회관 지붕방수  
기록집 제작
- 주민포럼, 디자인 워크숍 등

- 경관활동 1. 사회적농업마을기반조성 시범사업: 흥성군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단일농장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적농업 활동을 마을전체로 연계하여 사회적 농장을 방문하는 방문객뿐만 아니라 마을 및 지역 내 사회적 약자(노인, 장애인, 아동, 청년 등)까지 함께 케어할 수 있는 자유 코스로서 마을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하여 도산2리를 사회적 농업마을로 만들기 위한 '사회적 농업 마을 조성을 위한 경관계획' 세우기 사업이다



에는 워크숍 센터를 포함해 지역 내 다양한 사회적 경제 조직과 협동조합, 청년 네트워크가 입주해 있으며, 이들이 상호 협력하고 자원을 공유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입주한 주요 단체로는 농업 기반의 협동조합, 지역 커뮤니티 카페, 문화예술 단체, 교육 협력 네트워크 등이 있으며, 이들은 공동의 목표를 위해 지식과 자원을 교환하며 상호 돌봄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 3. 장곡과 오누이 마을이 전환 거점으로서 가지는 구체적 의미

장곡과 오누이친환경마을협동조합/센터는 단순한 지역 공동체를 넘어 복합위기에 대응하는 전환 거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들은 단지 지역사회 복원이나 경제 활성화에 그치지 않고, 대안적 사회 모델을 실험하고 확산하는 전환의 핵심 거점으로 작동하고 있다.

#### 1) 변화의 서사와 주제 역량 강화

장곡과 오누이 마을은 다양한 사회적이고 민주적인 실험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이는 기존의 시장 중심 경제 시스템을 넘어선 협동조합 기반의 경제 모델, 지속 가능한 농업, 공동체 기반 돌봄 시스템 등을 통해 나타난다. 이러한 실험들은 새로운 대안적 삶의 방식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학습과 혁신의 장으로 기능한다. 이 보고서에서 자세히 기술하지는 못했지만, 이곳에서 전환 거점으로서 필요한 '변화의 서사'가 홍성군과 장곡면, 그리고 흥동면에서 지역 차원에서 '풀무학교'와의 관계를 포함해서 어떻게 역사사회적으로 만들어지고, 일상의 복합적 동선(주민자치회, 사회적 농업 네트워크, 함께 장곡을 통한 상호 돌봄 활동, 차담 문화, 아침 모임, 주중 저녁 여러 배움 시간, 행복

식당에서의 공동 식사, 워크이션 공간과 예절교육관을 매개로 형성되는 외지인과의 상호소통적 교류(등)을 통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윤리적으로 체득되었는지를 앞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것이 어찌면 장곡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회경제적이고 상생적 협력의 개량적으로 측정불가능한 힘이 아닐까 하기 때문이다.

## 2) 대안 세계의 예시적 경험 기회이자 ‘국가를 커머닝’하는 실천

또한 이 지역은 독특한 지역사회 조직 협력망, 즉 신뢰에 기반한 상호 출자 및 지원 연결망은 외부와의 호혜적이고 개방적인 관계, 그리고 도덕경제적 태도를 통해서 지속가능성과 확장성을 높일 수 있었다. 이는 도시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진보적 거점 형성 방식으로 고려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연결망을 갖춘 장곡과 같은 장소가 도시를 거점으로 하는 진보정당/정치의 전환 거점으로서도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프레카리아트화되는 주체의 위기에 대응하면서 ‘대항-대안적 전환 주체’ 형성의 물적 기반으로서, 그리고 대안 세계를 예시적으로 경험하는 기회로서도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도시 위기에 대한 대응이라는 차원에서도 곧 도시와 농촌 관계를 대안적으로 전환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으며, 여러 전환 거점의 연결망 구축과 확장은 그 자체가 진보운동이자 새로운 진보정당의 모델이 될 수도 있으며, 국가를 커머닝하고 공공성과 공통세계를 회복해 가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 5장 나오며

문제를 정확히 분석하고, 그 해법을 찾는 과정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그 해법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어떤 사례를 발견하는 것과 소개하는 것은 매우 힘든 작업이다. 이 보고서의 맨 처음에서도 언급했듯이, 뭔가 창의적인 상상력과 실천력을 촉발하는 매개로서의 역할이 있어야 하는 사례가 오히려 모두가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규범적 코드가 되버려서, 다른 많은 사례를 평가하고 분류하고 왜곡되게 재현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 연구가 미천함에도 불구하고, 이 보고서에서 과감히 장곡을 소개한 것은 여기가 전국 어디서든 두세 시간이면 찾아갈 수 있어서 궁금하면 직접 찾아가서 관찰하고, 경험하고,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이 보고서에 내가 담은 장곡 이야기의 틀리거나 부족한 부분을 고치고 채울 수 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장곡을 더 정확히 알 수도 있을 것이다.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진보정당과 진보정치에게 지금 절실한 어떤 실천적 대안, 전환의 전략에 대해 더 구체적인 고민을 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내가 적지 않게 바라는 건 장곡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이들이 장곡의 어떤 변화의 서사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서서히 장곡의 '관계 인구'가 되어 장곡의 저밀도 경제사회라는 어려움을 장곡주민들이 이겨 나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바란다면, 그곳이 장곡이 되든, 혹은 어떤 영감 속에서 다른 어떤 곳이든 진보정당과 진보정치가 다시 더 활성화되기 위한 중요한 전환 거점이 하나둘씩 만들어지고 연결되어, 새로운 진보정치를 좀 더 자신있게 그리고 든든한 자원을 가지고서, 좀 더 분명히 대안 세계를 예시적으로 경험하고, 든든한 변화의 서사를 움켜지는 것이다.

다중 위기에 대응하고, 이제는 점점 더 폭력적인 괴물처럼 노골적으로 변해가는 신자유주의 과두제 정치집단에 맞서 우리 스스로를 방어하고 회복하면서, 대안 세계를 만들어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길이고 더 많은 동료들의 서로 돌보고 위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보고서가 그런 과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본 연구는 신관료적 권위주의와 신자유주의 과두제의 지배 속에서 사유화되고 있는 한국 정치 공간의 위기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대항 권력과 대안 정치의 구성 전략을 모색하는 데서 출발하였다. 다중 위기와 공통 세계의 붕괴라는 복합적 현실에 직면한 우리는 기존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대응이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본 연구는 '전환 거점'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탐구하며, 홍성 장곡면과 오누이 마을의 사례를 통해 구체적인 대안적 실천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첫째, 다중 위기와 공통 세계의 붕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는 경제, 환경, 정치, 사회, 기술 등 다양한 영역의 위기가 상호 연결되어 심화되는 현실을 직시하였다. 이러한 다중 위기는 단순한 위기의 집합체가 아니라 상호작용과 피드백을 통해 기존의 대응 체계를 무력화하며, 사회적 불안정과 민주주의의 위기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특히 신관료적 권위주의와 신자유주의 과두제의 결합은 정치적 탈민주화와 사회적 야만화를 촉진하여 공공성과 공통 세계의 붕괴를 심화시킨다.

둘째,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전환은 단순한 개혁이나 조정이 아닌, 기존 체제의 근본적 구조와 가치를 재편하는 과정이다. TRANSIT 이론과 전환적 사회

혁신 개념을 통해 다층위적 변화의 필요성을 확인하였으며, 변화의 서사를 통해 새로운 사회적 상상력과 정치적 실천을 촉진하는 전략을 제시하였다. 탈-투기적 도시화와 탈-행성적 도시화는 기존 도시 개발 패러다임의 한계를 넘어서는 대안적 도시 구성체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중요한 방향성을 제공한다.

셋째, 전환 거점의 개념과 필요성을 통해 우리는 신자유주의적 헤게모니 질서와 투기적 도시화의 대안으로서 전환 거점이 가지는 중요성을 논의하였다. 전환 거점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닌, 대항적 도시 구성체로서 대안적 삶의 가능성을 실천하고 새로운 정치적 주체성이 형성되는 공간적 결절점이다. 이는 헤테로토피아로서의 공간적 실험과 진지전의 전략적 실천이 결합된 형태로, 착취와 차별의 현장을 해방의 현장으로 전환하고 대안적 자원과 경험을 축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넷째, 홍성 장곡면과 오누이 마을의 사례 분석을 통해 우리는 전환 거점의 구체적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이 지역은 단순한 지역 공동체를 넘어, 복합위기에 대응하는 전환 거점으로서의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상호 출자 방식, 공동체 기반의 돌봄 네트워크, 도덕 경제 실천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 연대와 정치적 주체성이 형성되고 있으며, 이는 대안적 사회 모델의 구체적 실험으로 기능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복합위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대항 권력과 대안 정치의 새로운 전략으로서 전환 거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전환 거점은 공통 세계의 붕괴와 주체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물질 토대이자, 대안적 정치 실천의 장으로서 기능한다. 이는 단순한 지역적 실험을 넘어, 글로벌 복합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대안적 모델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다.

앞으로의 과제는 이러한 전환 거점들이 상호 연결된 네트워크로 확장되어, 등가 사슬을 형성하고 대항적 헤게모니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는 개별적인 실험을 넘어, 보다 광범위한 사회적 전환을 촉진하는 전략적 기반이 될 것이다. 본 연구가 제시한 전환 거점의 개념과 사례는 향후 대안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Laclau, E. 2005. *On Populist Reason*. Verson
- Tooze, A. 2022. "Welcome to the world of the polycrisis." *Financial Times* 22 October,  
<https://www.ft.com/content/498398e7-11b1-494b-9cd3-6d669dc3de33>.
- Charlotte Hess, 2008, Mapping of the New Commons, W08-21, July 2008,  
[https://papers.ssrn.com/sol3/Delivery.cfm/SSRN\\_ID1356835\\_code842516.pdf?abstractid=1356835&mirid=1](https://papers.ssrn.com/sol3/Delivery.cfm/SSRN_ID1356835_code842516.pdf?abstractid=1356835&mirid=1), p. 13
- 김은주. 2024. 「다중위기 시대, 비인간 전회와 회절의 정치」, 『여성학연구』. 제34권 제1호. pp. 7-34.
- 김정섭. 2018. 「사회적 농업, 농업과 농촌의 탈영토화-홍성군 장곡면 사례」. 『농촌지도와 개발』. 25(3). pp. 121-133.
- 라클라우, 에르네스토·무페, 샬탈, 2012. 『헤게모니와 사회주의 전략: 급진 민주주의의 정치를 향하여』. 이승원 역. 후마니타스
- 랑시에르, 자크. 2013.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에서』. 양창렬 역. 도서출판 길; 자크 랑시에르. 2015. 진태원 역 『불화』. 도서출판 길
- 맥퍼슨, C. B. 2002. 『흙스와 로크의 사회철학: 소유적 개인주의의 정치이론』. 황경식 역. 박영사
- 모랭, 에드가·최연구. 1998. 「불확실성의 21세기, 어떻게 맞을 것인가.」, 『당대비평』. 5호. pp. 22-37.
- 무페, 샬탈. 2019. 『좌파 포퓰리즘을 위하여』. 이승원 역. 문학세계사
- 박배균, 박양범. 2023. 「‘강남화’의 사회-문화적 과정과 헤게모니적 영토성」, 『공간과 사회』. 통권86호
- 박희찬. 2024. 『관계인구』. 돌베개
- 버틀러, 주디스. 2020. 『연대하는 신체들과 거리의 정치: 집회의 수행성 이론을 위한 노트』, 김응산·양효실 옮김, 창비
- 상바오. 2024. 『경계를 넘는 공동체』. 글항아리
- 아벨, 줄리안. 클라크, 린지. 2021. 『누구도 홀로 외롭게 병들지 않도록: 영국 사회를 뒤흔든 프롬 마을의 컴패션 프로젝트』. 이지혜 옮김. 남해의 봄날
- 이승욱. 2024. 「다중위기의 시대, 한국 지정학 연구의 동향과 전망」, 『공간과 사회』 통권 87호. pp. 69-106.
- 이승원. 2023a. 「공공성과 신관료적 권위주의: 공공성과 정치의 민주적 회복을 위한 개념적 고찰」, 『시민과 세계』 하반기호(통권 45호)
- 이승원. 2023b. 「도시 구성체와 도시 커먼즈: 대안적 도시 전환을 위한 개념적 고찰」, 『공간과 사회』. 통권86호.
- 이승원. 2019. 「도시 커먼즈와 민주주의: 도시 커먼즈 운동의 특징과 동학에 관한 이론적

- 재고찰」, 『공간과 사회』 통권 68호.
- 장훈교. 2017. 「<TRANSIT>과 전환적 사회혁신」. 『월간 사회혁신의 시선』. 10호. 4월 29일. 사회혁신리서치랩
- 정병걸·송위진. 2019. 「전환적 사회혁신론과 사회혁신: 전환관점에서 본 한국의 사회혁신정책」.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제9권 4호